

정책감사팀
2023-15

【2023년 김해의 복지현장과 함께하는 연구】

#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통합적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김해시를 중심으로-

2023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연구 내용 .....	3
4. 연구범위 및 방법 .....	3
<b>II.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배경</b> .....	7
1. 이주배경청소년 정의 .....	7
2.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적응에 관한 논의 .....	10
3. 이주배경청소년관련 주요 요인 .....	11
<b>III. 한국 이주배경청소년 현황</b> .....	17
1. 우리나라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	17
2. 김해지역 이주배경 인구 현황 .....	19
3.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현황 .....	24
4. 소결 .....	27
<b>IV.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사업</b> .....	29
1.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사업현황 .....	29
2.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지원 현황 .....	31
3.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지원 비영리기관 현황 .....	34
4. 소결 .....	35

<b>V. 양적연구</b>	<b>37</b>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7
2. 연구분석 결과	41
3. 소결	61
<b>VI. 초점집단 인터뷰(FGD)</b>	<b>65</b>
1. 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	65
2. 연구 분석 결과	70
3. 소결	85
<b>VII. 결론 및 제언</b>	<b>87</b>
1. 분석 결과 요약	87
2. 시사점 및 제언	91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95
참고문헌	96
[부록] 설문지	99

## 표 목 차

〈표 I-1〉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3
〈표 I-2〉 조사추진 일정 .....	5
〈표 II-1〉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포함 대상 및 특성 .....	8
〈표 II-2〉 교육부 다문화학생 구분 .....	9
〈표 II-3〉 한국 입국후 가장 힘든 상황 .....	11
〈표 II-4〉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령과 내용 .....	11
〈표 III-1〉 이주배경청소년(학생) 가족유형별 현황 .....	17
〈표 III-2〉 연도별 김해시 인구 현황 .....	21
〈표 III-3〉 김해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유형 .....	25
〈표 IV-1〉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1 .....	29
〈표 IV-2〉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2 .....	29
〈표 IV-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3 .....	30
〈표 IV-4〉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4 .....	30
〈표 IV-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	30
〈표 IV-6〉 여성가족부 다문화 지원 .....	32
〈표 IV-7〉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지원사업 .....	33
〈표 IV-8〉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	35
〈표 V-1〉 설문조사 문항구성 .....	38
〈표 V-2〉 일반적 특성 분포 .....	42
〈표 V-3〉 문화적응(한국어 수준) 정도 .....	44
〈표 V-4〉 문화적응(생활양식) 정도 .....	46
〈표 V-5〉 심리적 적응 정도 분포(내재화) .....	48
〈표 V-6〉 심리적 적응 정도 분포(외현화) .....	59
〈표 V-7〉 관계적응 수준 분포 .....	51

<표 V-8>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 정도 .....	52
<표 V-9> 문화적응(한국어 수준) 차이검정 .....	55
<표 V-10> 문화적응(생활양식) 차이검정 .....	56
<표 V-11> 심리적응 정도 차이검정 .....	58
<표 V-12> 관계적응 차이검정 .....	59
<표 V-13> 진로 및 학업 관심정도 차이검정 .....	60
<표 VI-1>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 참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66
<표 VI-2> 초점집단 일반적 특성 문항 .....	67
<표 VI-3>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	68
<표 VI-4> 한국 입국 동기 .....	70
<표 VI-5> 문화 적응 어려움 .....	71
<표 VI-6> 심리적응(한국 차별 경험) .....	72
<표 VI-7> 심리적응(한국 차별 극복) .....	73
<표 VI-8> 한국 사회의 적응 .....	74
<표 VI-9>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 .....	74
<표 VI-10> 관계적응(한국 생활 변화) .....	75
<표 VI-11> 한국어 수준 .....	76
<표 VI-12> 한국 생활 보람 .....	76
<표 VI-13>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 .....	77
<표 VI-14> 한국 생활 적응 .....	78
<표 VI-15> 학교 관리 및 처우에 대한 인식 .....	79
<표 VI-16> 한국 생활 어려움 .....	79
<표 VI-17> 학교생활 어려움 극복 방법 .....	80
<표 VI-18> 한국생활 만족감 .....	81
<표 VI-19> 장학금 경험 .....	82
<표 VI-20> 한국어 경험 방법 .....	83
<표 VI-21> 관계 정도 .....	84



## 그림 목 차

<그림 I-1> 조사설계 과정 .....	5
<그림 III-1> 이주배경청소년(학생) 현황 .....	18
<그림 III-2> 부모의 출신국적별 학생 비율 .....	19
<그림 III-3> 김해지역 지도 .....	20
<그림 III-4> 김해시 외국인 인구변화 추이 .....	21
<그림 III-5> 김해시 이주배경인구 현황(성별) .....	22
<그림 III-6> 김해시 이주배경인구 현황(지역별) .....	23
<그림 III-7>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가구 분포 .....	24
<그림 III-8> 이주배경청소년 유형(학년별) .....	25
<그림 III-9>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학년별 분포 현황 .....	26
<그림 III-10> 관내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현황(10대연령 기준) .....	2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이주배경 인구 현황은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총인구 5,019만 명의 6.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국내 이주배경청소년도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다(교육부, 2022). 특히 이주배경 총인구 중 유소년 비중은 2040년 9.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 10명 중 1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로 구성된다는 말이다.

2021년에 실시된 이주배경 인구 추이 통계를 보면 학령인구는 2020년 30만 명에서 2040년 47만 명으로 1.6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이주배경 인구 중 학령인구는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더불어 유형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성장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화규범, 언어적응, 심리적 적응, 또래관계 등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및 진로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다. 소외계층으로 낙인 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원주민의 이주배경에 대한 배타적인 부정적인 인식이다(김화영 외, 2021; 배상률 외, 2018; 서덕희, 2016; 황복선·전성훈, 2020).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힘들게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19년 법무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균형 잡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과 이민자 간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갈등 조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기된 바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 또한 한국 사회가 문제로 지적하는 차별과 낙인 등의 부정적인 인식, 원주민의 배타적 인식 등은 사회통합 저해 및 갈등조장 등 사회 문제적 요인들이 결국 공교육 진입의 문제, 학교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 니트<sup>1)</sup> 현상의 증가 등의 개인적 문제가 이차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회·개인적 문제점은 현재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통합적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1)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OECD)는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현재 다문화국가 진입 단계에 있는 한국의 이주배경지원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분야로 던져 주기 정책에서 진지하게 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지원 정책의 한계점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부처와 학술계에서도 많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조사가 진행된 김해지역은 이주배경 인구 분포가 5.4%로 다문화 지역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주배경 인구 중 학령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유형도 다양해졌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문제적 요인들이 개인적 문제로 확산되는 현상은 김해지역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적·개인적 문제 요소들을 파악하여 건강한 김해지역의 지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의 실천적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정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제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인구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개인적 사회·심리적 정도를 이론적 접근과 정량적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 3. 연구 내용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적응 정도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사회통합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내용을 진행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에 관련한 사회통합에 관련된 논의를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설계에 대해서 예비조사, 연구 방법, 이론적 표본추출 과정(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에 맞는 질문지 구성, 연구 대상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 방법 순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양적연구와 초점 집단인터뷰(FGI)를 병행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은 <표 1-1>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구분		주요 내용
연구 범위	공간적 범위	김해시 관내
	시간적 범위	2023년 7월~9월
	대상적 범위	김해시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학생중심)
	내용적 범위	선행연구 검토 및 통계적 연구 자료 결과
연구 방법	문헌연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학술 및 정책보고서 검토
	양적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설문지 진행
	FGI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FGI 진행

## 1) 연구 범위

연구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정적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에 따른 사회통합과정을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대상자 유형으로는 본인 출생지와 부모 배경을 중심으로, 국내·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외 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탈북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조사범위를 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9세 이상 ~ 24세 이하의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한다.

## 2) 조사 설계 및 방법

본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한 양적연구 조사 방법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이주배경청소년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해 나가는 질적 연구 조사 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사에 앞서 연구 회합을 통하여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고, 설문지 기초 자료인 선행연구 자료<sup>2)</sup>를 공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살펴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완성된 설문지를 예비조사를 진행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자 하였으나,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 조사 능력에 오류 발생이 많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오프라인 설문조사만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병행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FGI에 사용할 반구조화된 초안 구성과 1차 면접 진행 후, 2주 후에 심층면접을 2차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개발한 「심리사회적응」 척도지.

### 3) 조사추진 일정 및 진행과정

연구추진 일정 및 단계별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표 I -2>와 같다.

<표 I -2> 조사추진 일정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 수립	▶							
설문지 구성	▶	▶						
예비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자료 수집 및 결과분석			▶	▶	▶			
보고서 초안 작성					▶	▶		
보고서 보완 및 수정						▶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결과 보고회								▶

본 조사의 설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I -1]과 같다.



[그림 I-1] 조사설계 과정





## II.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청소년 정의

#### 1) 이주배경청소년 정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는 9세 이상 ~ 24세 이하인 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용어는 법령과 정부 부처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 ‘탈북청소년’,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언급되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말한다.

다음은 정부의 각 부처는 이주배경 대상자를 구분하는 규정을 살펴본 바,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2022)에서 다문화학생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나누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는 국민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나눈다. 여성가족부는 국내·외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국내·외 출생 외국인가정자녀, 탈북배경청소년을 기준으로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귀화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와 북한에서 이주한 집단은 ‘북한이탈주민’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양계민, 2021).

정부의 각 부처 별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을 살펴본 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포하는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등’의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외국인에는 재한외국인 아동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외국 국적 재외 아동청소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난민 지위 인정자 또는 난민 지위 인정 신청자 아동청소년, 국제결혼 가정 중 부모 또는 아

동·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외국 국적을 유지할 경우를 말한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한 분류 유형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정과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은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아동’, ‘중도입국청소년’ 등으로 불리며 증가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 귀화자, 한국인으로 유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귀화자’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그 자녀를 입양한 경우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을 정의하면서 부모 중 한쪽이 출생 또는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제2조 제1호).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는 크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청소년과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 2)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 구분 기준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표 II-1>과 같이 7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둘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셋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넷째, 국외출생 외국인 가정 자녀, 다섯째, 북한출생 청소년, 여섯째,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일곱째,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둘째의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여섯째의 제3국 출생 탈북 배경 청소년에 속한다(박옥현·오영섭, 2022).

<표 II-1> 이주배경청소년 유형별 포함 대상 및 특성

유형	포함대상 및 특성
①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국내출생자이며 한국인 ·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②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 외국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 ·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 존재 · ‘중도입국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③ 국내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 자녀 · 본인의 국적은 외국 · 미등록,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 자녀 포함

④ 국외 출생 외국인 가정자녀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가정 자녀 · 본인의 국적은 외국 · 미등록, 난민, 유학생 자녀 포함
⑤ 남한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남한출생 자녀
⑥ 탈북청소년	· 북한에서 출생 한 후 탈북한 청소년
⑦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 ·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 ·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

교육부(2022)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2022)에서 다문화학생 유형을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나누었다(〈표 2〉참조). 먼저, 국제결혼가정 자녀 경우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출생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하여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로 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2〉와 같다.<sup>3)</sup>

〈표 II-2〉 교육부 다문화학생 구분

국제 결혼 가정	국내 출생 자녀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련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 인 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3) 교육부(2022), 『다문화교육지원계획』, p.25.

## 2.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적응에 관한 논의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에 입국 전에는 본국보다 생활 여건의 편리함이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주 초기에는 언어문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나 주변 사람들의 놀림이나 따돌림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인 문제까지 초래하였다. 이후 학업 및 진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진 외, 2012).

먼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적응 가장 방해요인은 ‘언어 장벽’이다. ‘언어 장벽’은 학업과 진로 등 한국사회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로 언어장벽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성공적인 적응과 진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을 언급하고 있다(배상률, 2016). 한국입국 후 가장 힘든 상황에 대한 내용을 <표 II-3><sup>4)</sup>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주배경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는 27.4%의 학생들이 한국 입국 후 한국에서의 공교육 입학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이라 했으며, 2년 이상이라는 학생들 비율도 10.6%에 달했다. 학교부적응은 학생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실패하여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및 질서와 불일치하거나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학교 환경과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부적절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이정섭·왕금미, 2021). 이를 방지할 경우 이들의 한국 정착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교육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된 청년들(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 될 가능성이 높다(서덕희, 2016; 노승인, 2018). 이처럼 일반학교 적응이 쉽지 않아 방치되거나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 향후 이주배경청소년의 불안정한 삶으로 취약계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4) 서덕희, 2016,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상황과 진로지원”, p.57.

〈표 II-3〉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상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빈도(%)	빈도(%)
경제적 어려움	24(11.9)	8(4.0)	12(5.9)
건강	13(6.4)	6(3.0)	2(1.0)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	16(7.9)	8(4.0)	6(3.0)
이성과의 교제	8(4.0)	5(2.5)	7(3.5)
일자리 구하기	12(5.9)	20(9.9)	19(9.4)
외국인에 대한 차별	6(3.0)	14(6.9)	6(3.0)
체류자격 문제	21(10.4)	22(10.9)	13(6.4)
미래에 대한 불안	11(5.4)	24(11.9)	26(12.9)
우울, 불안, 좌절 등 정서적 문제	6(3.0)	15(7.4)	11(5.4)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8(4.0)	13(6.4)	13(6.4)
<b>언어(한국어)문제</b>	<b>55(27.2)</b>	31(15.3)	34(16.8)
기타	4(2.0)	1(0.5)	3(1.5)
무응답	18(8.9)	35(17.3)	50(24.8)
합계	202(100.0)	202(100.0)	202(100.0)

### 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주요 요인

#### 1)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

이주배경을 가진 자의 사회통합에 대해 표준적이고 학술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민자가 유입국의 구성원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참여를 통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문병기 외,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4〉과 같다.

〈표 II-4〉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령과 내용

관련 법령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목적)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 이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 과 “사회통합” 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하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을 하며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 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황복선 외, 2020).

지금까지 살펴 본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적 정의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성공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방향성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020년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반해 국내 인구 증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뿐 만 아니라 인구부양비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을 이국민으로 관망하기보다는 한국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체류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에 따른 체류 기간과 활동의 영역들이 복잡하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 제도가 포괄적이기 보다는 한정적이고, 다양하기보다는 단순, 중복적이라는 점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 사회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방치 또는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회적 배제는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 Berry(2006)은 어느 문화에도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며 혼동하는 주변인 유형은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두 가지 형태의 적응이 모두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한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정책은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사회적 포용이란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나 욕구가 결핍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갈등과 분열의 감소를 통해 배제적 상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의 가치와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해 나아가려면 정책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황복선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단계적 접근을 하기 위해, 개인적 촉진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개인적 촉진요소를 문화적응, 심리적응, 관계적응, 진로 및 학업 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sup>5)</sup>

적응(adaptation)의 사전적 어의는 개인이 사회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그렇게 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이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개인의 정서, 감정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과 환경에 대처하는 행동,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순규, 20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주배경 청소년은 출생국과 이주국의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심리사회적 적응해야 되

---

5) 김화영 외(2020). 한국거주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사회적응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에서 발췌 후 편집함.

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노충래·홍진주, 2006; 이수진·김현주, 2016; 김화영 외, 2021 재인용). Dubois, Felner, Meares 그리고 Krier(1994)는 청소년기에 접하는 문화적 환경과 적응 수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한 정서적응, 행동적응, 학업적응은 심리사회적 적응이라는 큰 범주로 나누어 요인별로 적응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Garmezy, 1994).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응 주요 요인으로 제시한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심리적응, 관계적응, 진로 및 학업 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①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개인이 모국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느냐 여부와 이주사회의 주류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문화적응의 유형을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라는 4가지 적응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Berry, 2003).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 규범, 생활양식,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을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느끼는 문화적 괴리감을 경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양계민·강경균·김주영, 2017), 이들의 한국 생활에서 문화적응 정도를 주요 요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을 ‘언어적 수준’과 ‘생활양식 적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② 심리적응

심리적응은 개인의 심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 주관적 생활영역에 대하여 내적으로 적응하는 상태이며(Lazarus, 1969),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새로운 환경 속에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만족감, 행복감, 분노감, 증오, 심적 불안함, 적대감, 좌절감, 우울감을 토로한다(이기숙, 2008). 심리적응의 정도를 내재화(만족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또는 외현화(긍정적 표현, 적극성, 공격성, 문제행동) 형태로 표출된다(Achenbach, 1991). 따라서 심리적응 가운데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심리적응’ 수준을 ‘내재화 수준’ 과 ‘외현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③ 관계적응

사회적 관계적응이란 사회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Lazarus, 1969). 주변사람들과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적합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Moorehouse, 1991).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어려움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간관계에서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조영달, 2006). 일반적인 청소년기는 친구, 교사, 선후배 등으로 사회적 관계 유지 기술을 습득하고 정교하게 훈련되는 연습하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으로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심적 공허, 고립감,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한다(오경석, 2010).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인간생활의 어려움도 극복,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응 측정요인으로 관계적응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④ 진로 및 학업 적응

진로 및 학업 적응에 대하여 김용래(2000)는 학교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업 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요구를 조절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특히 학교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업 정규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업 부진, 학습 결손 등 학교 부적응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류방란, 오성배, 2012; 한은진, 2013). 또한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최보람·유진이, 2016). 아울러 취업을 원하지만 진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다수가 진로에 대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오성배·서덕희, 2012). 이러한 상황은 학업과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 적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주 배경청소년들에게 주요 촉진요소로 진로 및 학업에 관심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 1. 우리나라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 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교육부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을 중심으로 가족유형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내출생은 122,093명, 중도입국은 9,427명, 외국인 가정은 28,536명으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변화는 증가하는 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주배경 가족 유형별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이 포함된 가정 순으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와 같다.<sup>6)</sup>

<표 Ⅲ-1> 이주배경청소년(학생) 가족유형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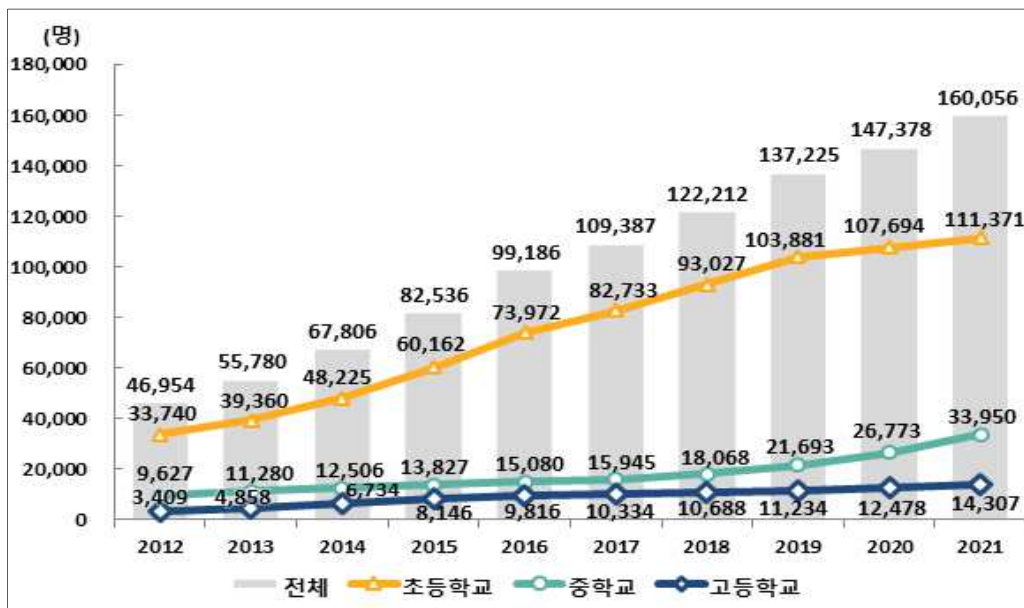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출생	108,069	113,774	122,093
중도입국	8,697	9,151	9,427
외국인 가정	20,459	24,453	28,536
계	137,225	147,378	160,056

교육부에서는 3년간(2019-2021) 초·중·고등학생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교육지원계획」(2022)을 발표하였다. 교육부(2022) 자료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국내 출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9년도 초등학생 5,163명 중학생 2,153명 고등학생 1,381명 총합계 8,697명, 2020년도 초등학생 5,088명 중학생 2,488명 고등학생 1,575명으로 총합계 9,151명, 2021년도 4월1일 기준으로 초등학생 4,969명 중학생 2,802명 고등학생 1,657명 총합계 9,4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기준 147,375명 중 초등학생은 107,694명, 중학생이 26,773명, 고등학생 12,47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초등생 비율은 전체 비율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중학생, 고등학

6) 교육부, 「2022년 교육기본계획안」, 21p.

생 순으로 인구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1년 기준 초·중등학교 학생 중 이주배경청소년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111,371명으로 전년 대비 3,677명(3.4%↑) 증가, 중학교는 33,950명으로 전년 대비 7,177명(26.8%↑) 증가, 고등학교는 4,307명으로 전년 대비 1,829명(14.7%↑) 증가, 각 학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5명(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의 증가세는 2021년 전년대비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현황은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인구변화 추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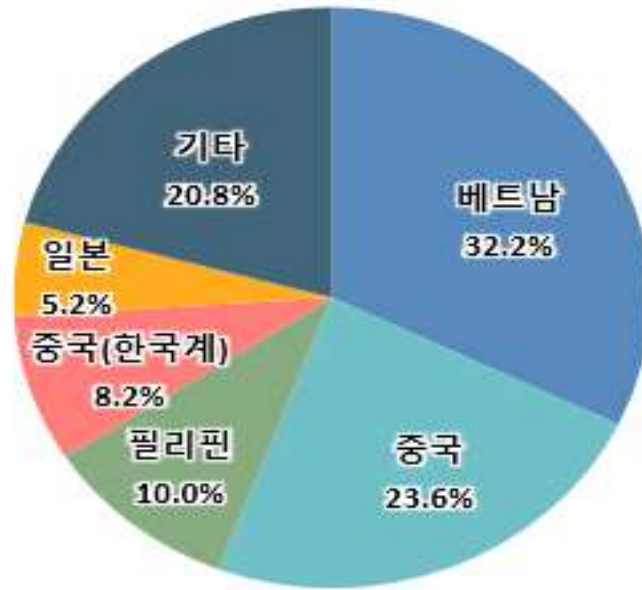


[그림 III-1] 이주배경청소년(학생) 현황

## 2) 이주배경청소년 유형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의 부모 출신국별로 구분해보면, 베트남 32.2%, 중국(한국계 제외) 23.6%, 필리핀 10.0%, 중국(한국계) 8.2%, 일본 5.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다문화)이 76.3%(122,093명)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가정 17.8%(28,536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5.9%(9,42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2]와 같다.<sup>8)</sup>

7) 교육부, 「2021년 교육기본통계」.



[그림 III-2] 부모의 출신국적별 학생 비율

상위 내용을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출신국과 입국 후 거주 지역도 다양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주, 충청, 전라, 경상권 등 다양한 지역에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실시한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는 재학 중인 학생의 학년별 집계로 연령별 파악이 어렵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이주배경청소년의 가족유형에 따른 인구변화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이주배경 인구변화 추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0년 218만명, 2025년에는 233만명으로, 2030년 264만명, 2040년에는 32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것으로 있다(통계청, 2022).

## 2. 김해지역 이주배경 인구 현황

김해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기 앞서 김해지역의 지리적 특성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해지역은 행정구역이 읍, 면, 동, 리가 혼합되어 있

8) 기타:태국,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기타 국가가 포함됨

는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다. 남쪽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 등 해안도시와 접하고 있고, 바다가 가까워 해양성 기후에 속한다. 북동쪽과 남서쪽을 제외하면 대체로 편평하며 시내에 있는 임호산과 분성산 등을 봐도 그리 높지 않다. 김해평야와 진영평야가 펼쳐져 있다. 행정구역은 1개 읍, 6개 면, 12개 행정동(34개 법정동), 246개 행정리(67개 법정리)이다. 시청은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김해지역 지도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함께 김해지역의 인구변화 형태도 이주배경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인구 변화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해시 인구변화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III-2>와 같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기준 김해시 전체 인구 536,456명, 2018년 539,401명, 2019년 549,331명으로 2020년 기준 552,4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기준 547,995명으로 2020년을 시점으로 전체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III-2> 연도별 김해시 인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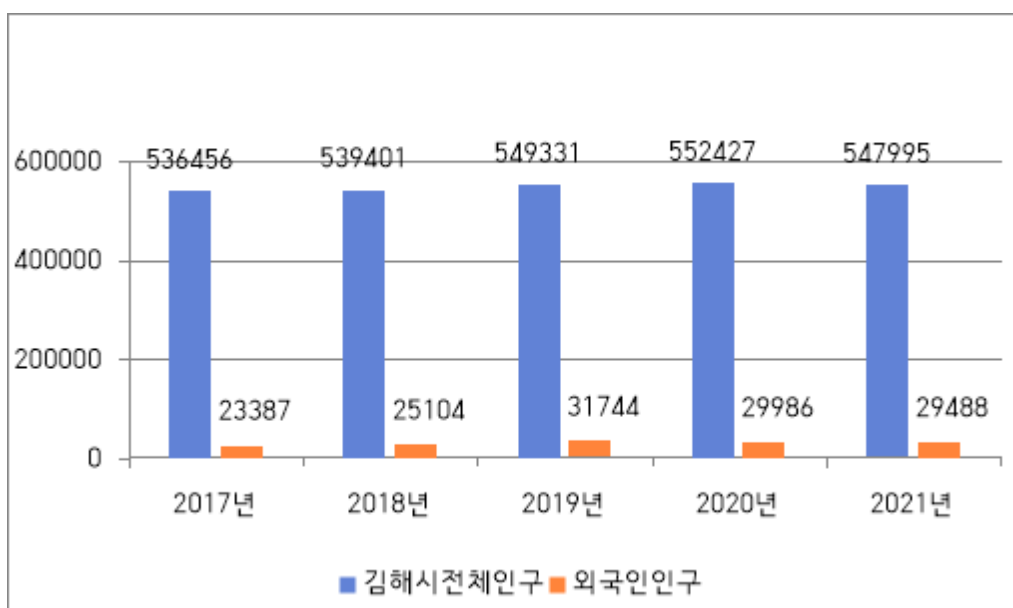
구 분	김해시	외국인	외국인 비율		
	계	소계	계	남	여
2017년	536,456	23,387	4.4	6.2	2.4
2018년	539,401	25,104	4.7	6.5	2.7
2019년	549,331	31,744	5.8	6.8	3.0
2020년	552,427	29,986	5.4	6.1	2.9
2021년	547,995	29,488	5.4	5.9	2.9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 행정DB」

주1. 해당연도 11. 1. 기준 김해시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

2. 외국인 비율 = (외국인 / 김해시)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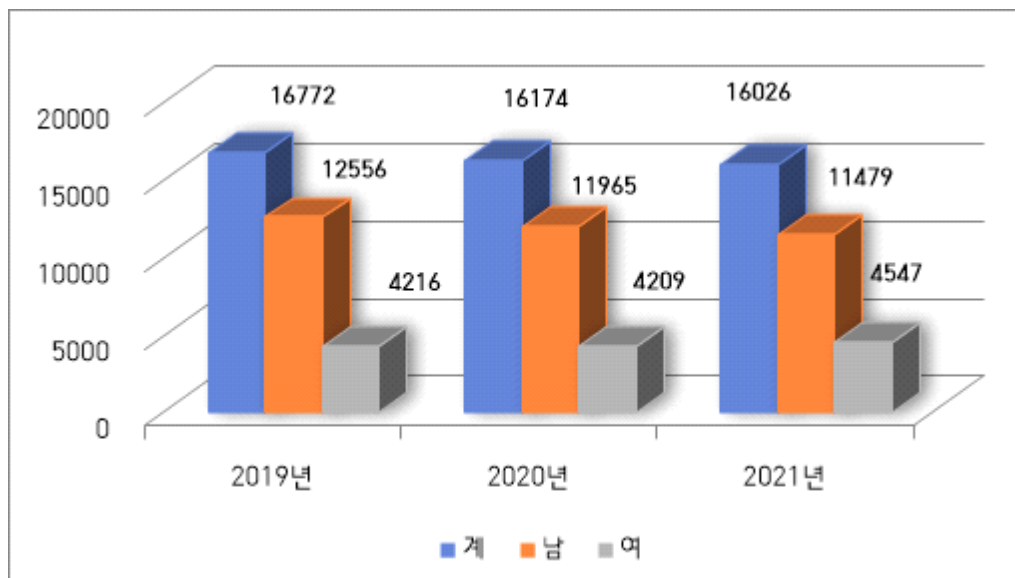
김해 인구 중 외국인의 인구변화 추이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김해시 전체 인구 대비 23,387명으로 4.4%, 2018년 25,104명 4.7%, 2019년 31,744명으로 5.8%로 급증하다가, 2020년 기준 29,986명 5.4%, 2021년 기준 29,488명 5.4%로 전체인구 감소와 함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지만, OECD의 다문화국가 분류기준인 5% 이상의 다문화도시로 분류되는 유형으로 접어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4]와 같다.



[그림 III-4] 김해시 외국인 인구변화 추이

(단위, 명)

성별에 관한 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2019년 12,556명, 2020년 11,965명, 2021년 11,479명이며, 여자는 2019년 4,216명, 2020년 4,209명, 2021년 4,547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5]과 같다.



[그림 III-5] 김해시 이주배경인구 현황(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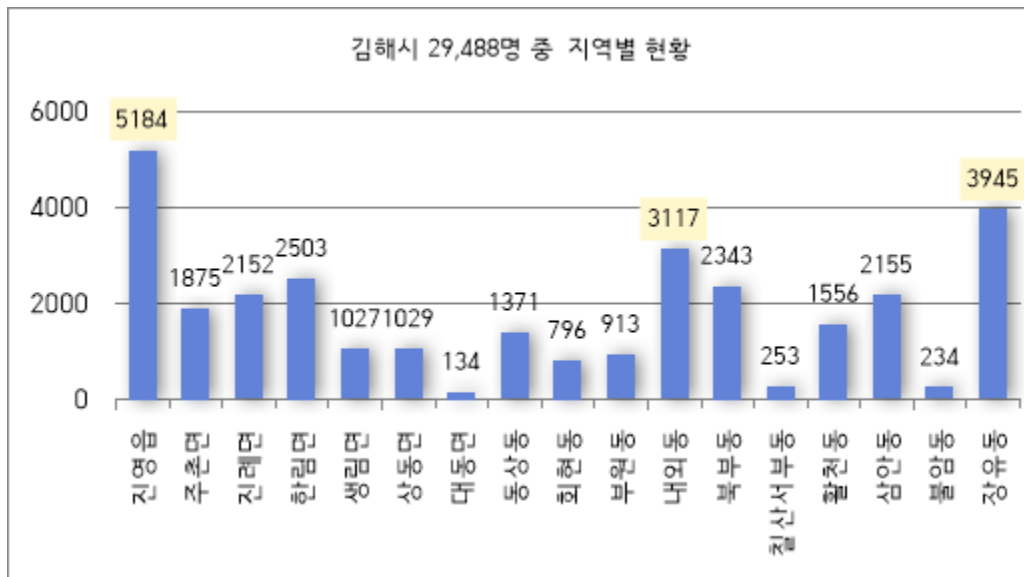
남자는 감소되고 있으며, 여자는 증가하고 인구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주배경 인구 분포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역별 이주배경인구 현황<sup>10)</sup>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김해시 전체 이주배경 현황은 29,48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 현황은 진영읍 5,184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장유동 3,495명, 내외동 3,117명, 한림면 2,503명, 북부동 2,3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6]과 같다.

9)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법무부

10) 통계청 「지역통계 행정DB」, (주)김해시에 거주하는 총 인구(외국인 포함)중 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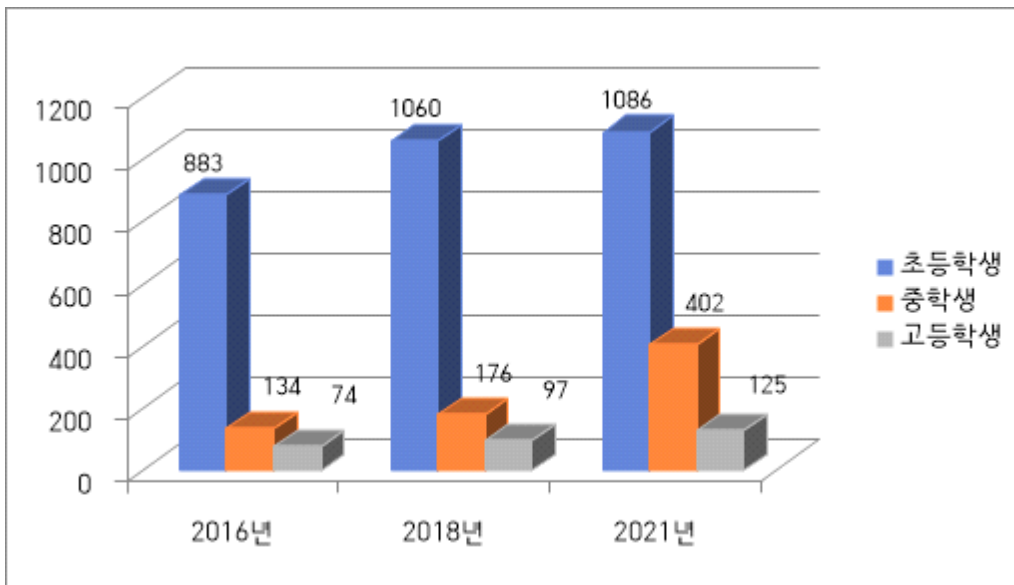
[그림 III-6] 김해지역 이주배경인구 현황(지역별)

(단위, 명)

### 3.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현황

#### 1)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현황

교육부(2022)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91명, 2018년 1,333명, 2021년 1,613명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구분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2016년 883명, 2018년 1060명으로, 2021년 108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생은 2016년 134명, 2018년 176명, 2021년 402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높다. 고등학생은 2016년 74명, 2018년 97명, 2021년 125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7>과 같다.



[그림 III-7]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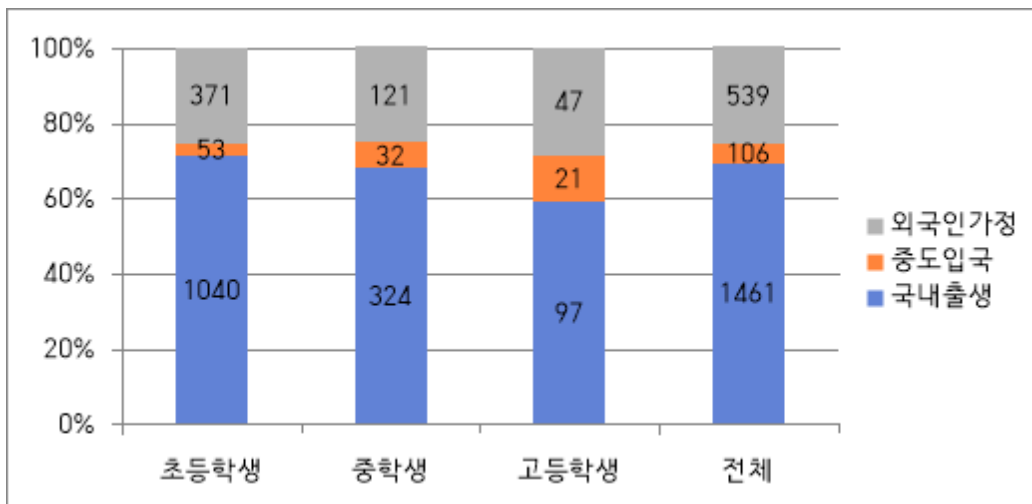
#### 2)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학생) 유형

김해시는 타지역에 비해 매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79명(13.81%), 2020년 1,925명(14.65%), 2021년 2,106명(9.40%)으로 경남 2019년 10,686명(2.83%), 2020년 11,452명(3.08%), 2021년 12,315명(3.32%)의 증가비율에 비해 증가하는 비율이 높다. 동시에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의 학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3>과 같다.11)

<표 III-3> 김해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유형

구분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수				이주배경 유형별 학생 수(2021)		
	2108	2019	2020	2021(급별비율)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초	1,172	1,307	1,437	1,464(69.5%)	1,040(71.0%)	53(3.6%)	371(25.3%)
중	196	255	360	477(22.6%)	324(67.9%)	32(6.7%)	121(37.3%)
고	79	117	128	165(7.8%)	97(58.8%)	21(12.7%)	47(28.5%)
계	1,447	1,679	1,925	2,106(100%)	1,461(69.4%)	106(5%)	539(25.6%)

관내 이주배경청소년(학생)의 유형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국내출생자가 1,040명(71.0%), 외국인가정 371명(25.3%), 중도입국 53명(3.6%)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국내출생자 324명(67.9%), 외국인가정 121명(37.3%), 중도입국 32명(6.7%)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97명(58.8%), 외국인가정 47명(28.5%), 중도입국 21명(12.7%)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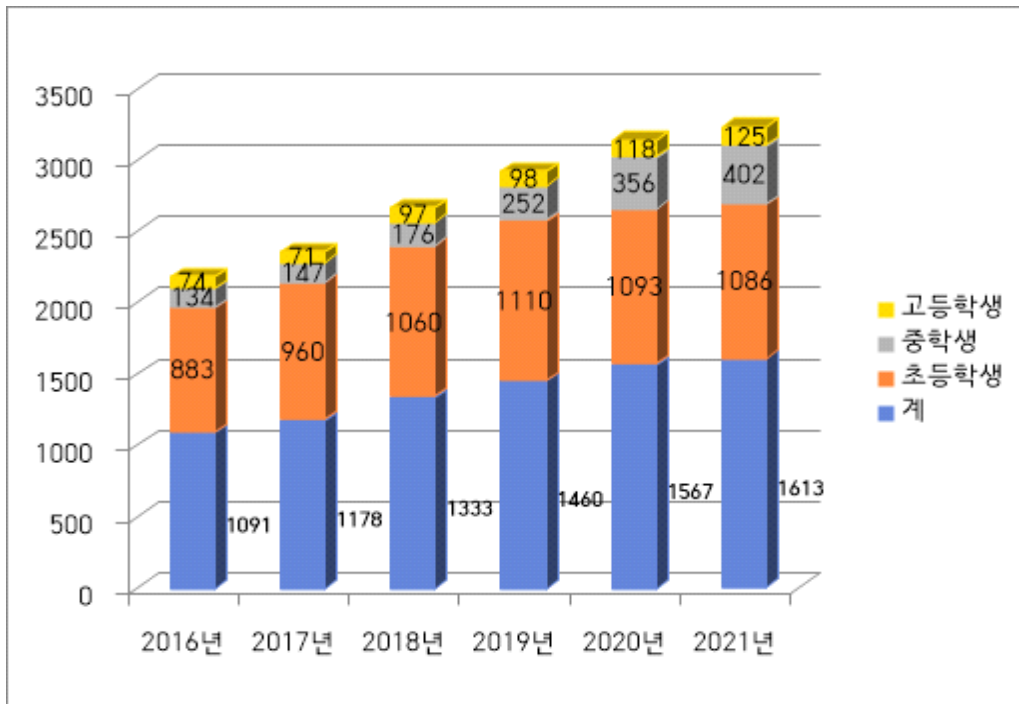
[그림 III-8] 이주배경청소년 유형(학년별)

여전히 중도입국청소년 중 학교밖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유형 구분에서 알 수 있다.

11) 2022. 김해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3)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학생) 학년별 현황

전체적으로 학년별 인구 분포 정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많았다. 2021년 기준 전체 이주배경청소년은 1613명으로 초등학생은 1,086명, 중학생 402명, 고등학생은 125명으로 나타났다, 도표에서 보듯이, 이주배경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분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인구 추이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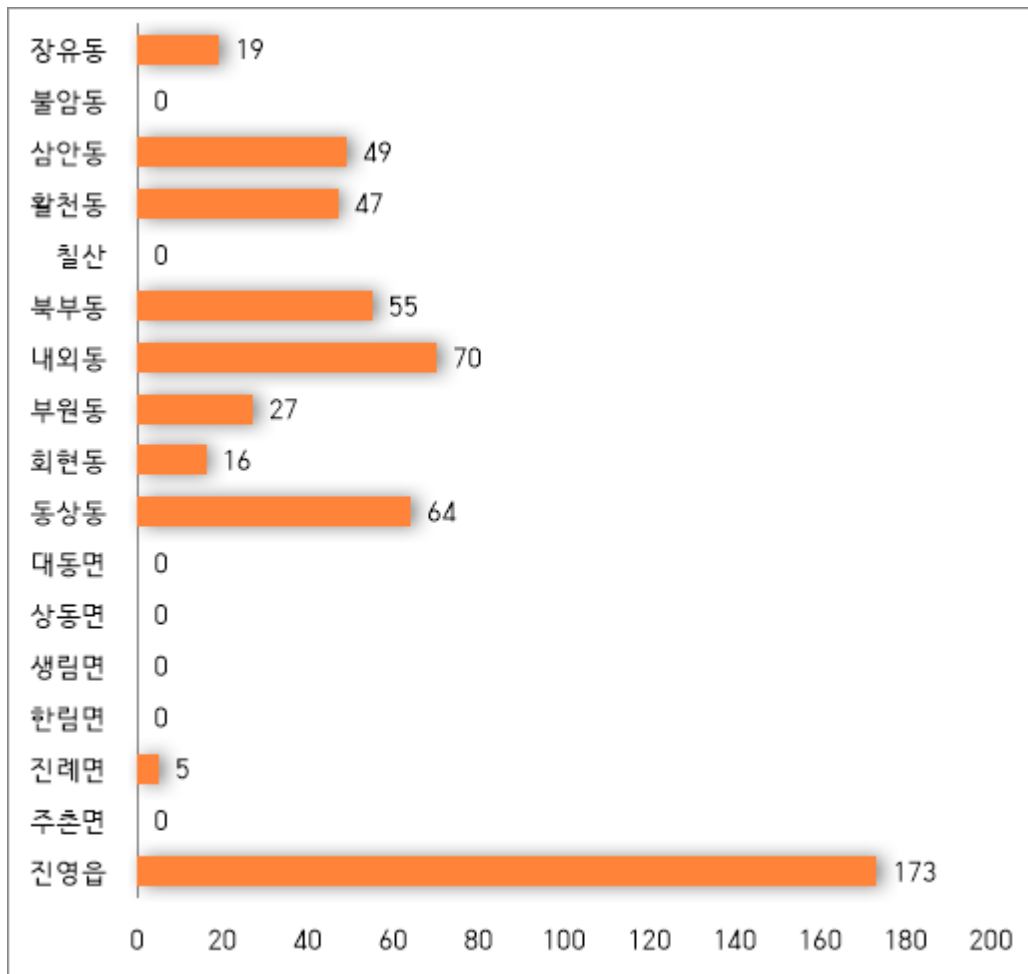


[그림 III-9]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학년별 분포 현황

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중심의 통계 현황만 확인할 수 있고,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 통계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정확한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분포는 어렵다.

### 4) 김해 관내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10대) 분포 현황

김해 관내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분포 현황을 10대 연령(10세~19세)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진영읍 17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내외동 70명, 동상동 64명, 북부동 55명, 삼안동 49명, 활천동 47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III-10]와 같다.<sup>12)</sup>



[그림 III-10] 관내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 분포 현황(10대연령 기준)

#### 4. 소결

먼저, 한국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전국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통계적 현황과 인구변동 추이를 매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윤정(2018)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를 추측할 뿐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현황만 정확히 집계될 뿐이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으로의 현황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은 먼저, 김해지역 전체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인 인구 현황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하는 추세로 나타

12) 김해시 홈페이지, 「인구통계」 편집

나지만,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감소로 해석이 되며, 전반적으로 김해지역 외국인 인구 분포는 경남지역 인구변화 추이보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해시 외국인 인구현황 및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구변화 추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온 통계치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감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021년 기준, 관내 지역별 이주배경인구 현황은 내외동, 진영읍, 북부동 순이며, 김해시 전체 인구 대비 구성비는 동상동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영읍과 한림면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학생)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수보다 많았지만, 변화 추세는 남학생은 감소하고 여학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분포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통계청과 교육부, 여성가족부 자료에서는 학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파악한 자료라는 점이다,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는 배제된 점이 이주배경청소년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한계점에 대하여 선행연구(양계민 외, 2021)<sup>13)</sup>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

13) 양계민, 정윤미, 정윤선(2021),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Ⅳ.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사업

### 1.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사업현황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법무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등이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다.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 및 대상,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 내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1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다문화가족 지원법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결혼 가정의 자녀 한국인과 귀화자 결혼 가정 자녀	만 24세 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만 9~24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재단

교육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 및 대상,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과 같다.

<표 IV-2>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2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내출생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만 24세 이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통일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 대상 및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3>과 같다.

<표 IV-3>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3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만6세~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시도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법무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법령, 정책 및 대상, 전달체계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4>과 같다.

<표 IV-4>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체계4

관계 법령	대상	연령	전달체계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전혼(前婚) 관계에서 낳은 미성년 외국인자녀	만18세 미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다음은,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현재 지원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5>과 같다.<sup>14)</sup>

<표 IV-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2023기준)

구분	내용
레인보우스쿨	- 2023년 전국 17개시·도, 26개 기관에서 운영(위탁 운영) - 한국어 교육(기초·심화, 학습), 진로교육(진로 탐색·설계), 필수교육(안전, 유해환경),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지원 - 총 32주(1학기 16주, 2학기 16주), 전일제, 시간제 운영 * 위탁운영기관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음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 비교문화체험학습 : 기초생활 체험(대중교통 이용, 교통카드 충전), 경제생활체험(남한의 화폐사용 및 물품 구매체험), 교육기관 체험(대학 탐방), 문화체험, 역사체험 등 - 미래를 향한 첫걸음 :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성, 인권, 진로, 건강, 자기이해 등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치관 확립

1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http://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



상담지원 및 상담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통합적 심리정서지원(대면, 비대면, 온라인 등)</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심리·상담을 돕고자 상담 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지원</li> <li>* 상담통역지원사 20명 양성·지원</li> <li>- 상담 및 사례관리사 위촉하여 상담역량 강화 및 찾아가는 상담 지원 *</li> <li>- 상담 및 사례관리사 위촉직 20명 운영</li> <li>-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응검사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보급</li> </ul>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12차시 운영(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위해 강사 파견,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자료 지원</li> <li>- 초·중학생 등 학령기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해 인식개선 및 세 계시민의식 제고</li> </ul>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인력 양성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 지도자 대상 다문화 역량강화 교육과정 제작 및 보급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살펴본 결과,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 국적 취득자 중심의 지원에 집중, 부처별 중복지원은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진입은 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포용지원 정책과 지원은 효과성은 의구심이 생긴다.

## 2.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학생) 지원 현황

### 1) 중앙 부처 지원 현황

먼저, 2022년 김해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은 다음 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모든 학생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학교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이다. 둘째,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 증가에 따른 다문화학생 유형별 맞춤형 교육 수요 증가로 다문화학생의 국적·연령·한국어 능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이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기반 및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지역사회·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 교육활동 지원 기능 강화한다. 넷째,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 가치(다 같이)’ 김해 다문화교육 지원한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관련 김해지역 지원 시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2)는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취학 연령대의 다문화 자녀도 증가하여 포용적 성장환경 마련 필요성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제도는 먼저, 학령기 다문화 자녀에 대한 취학전후 학습지원, 1:1 상담지원 등 동등한 출발선 보장 지원한다. 둘째, 중도입국 다문화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학교 내 한국어학급 지원 등 맞춤형 지도 강화한다. 셋째, 역차별 논란 및 집단 간 갈등 심화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에 내용은 <표 IV-6>와 같다.

<표 IV-6> 여성가족부 다문화 지원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유치원, 공무원, 군인, 학교 등 관계부처 협력하여 사회 전반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곳곳에 상호 문화 이해를 위한 기회 마련</li> </ul>

## 2)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김해시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이 크게 구분되어 지고 있다.

김해시 교육청의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들을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같이 배우고 다(한자)가치 기르는 어울림 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다문화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축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과제는 첫째,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이다. 둘째, 다문화 유형별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다. 셋째, 다가치 협력 네트워크 활용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7>와 같다.

<표 IV-7>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지원사업

비 전		
다 같이 배우며 성장하는 학생, 다양하고 조화로운 학교		
목 표		
1. 다문화교육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 및 글로벌 인재 양성 2.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3. 다문화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축		
추진과제		
1.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다문화교육	교과수업 연계교육 운영 확대	1.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확산 2. 다가치 꾸러미 대여 및 활용 연계 지원 3.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4. 다문화학생 온라인 누리교실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원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원 2. 학교-지역사회 협력 모델 개발 지원 3. 징검다리과정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교육교원학부모 연구 학대	다문화교육 교원 연수 운영관리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연수 지원
2. 다문화 유형별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맞춤형 한국어교육 확대지원	1. 다문화교육 특별(한국어)학급 지원 2.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지원	1. 맞춤형교육 지원 다양화 2. 대학생 멘토링 지원
	이중언어교육 협력 지원	1. 다문화(이중)언어강사 활용 교육 지원 2.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참가 지원
	진로및진학, 정서함양 지원	1. 대입정보센터 협력 진학프로그램 지원 2. 김해알기 다문화학생 체험캠프 운영 3.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
3. 다가치 협력 네트워크 활용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지원	1.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2. 다문화교육 현장 지원 컨설팅 3. 키다리선생님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체제	다문화교육 위원회 운영	1. 다문화교육 현장지원단 운영 2.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유관기관 네트워크형 운영	1. 김해 다가치교육지원단 운영 2. 다문화학생 공교육 영입상담 및 지원 단체 공모 운영 3. 온라인 수업에 따른 '통번역지원업무' 협약 운영
	지역 연계 사업 참여 및 지원	1. 지역 다문화축제 및 연계 사업 참여 및 지원

여성가족부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2022년부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언어 지원, 학습지원, 가족 관계 개선 및 학부모 역량강화 지원, 심리정서상담, 진로 진학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 이주배경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지원사업은 김해시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 기관에 지정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3.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비영리기관 현황

이주배경을 가진 한국 거주자들을 지원 비영리 기관<sup>15)</sup>은 김해시 관내 현재 10곳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기관은 김해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곽지는 2곳으로 진영읍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1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8>과 같다.

15)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지원센터. <https://gnmigrant.or.kr>

〈표 IV-8〉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기관명	지역
김해시내	가족센터	김해시 김해대로 2232-0
	징검다리센터	김해시 우암로 43번길 8
	한국이주민의집	김해시 호계로 517번길 25-1 2층
	구소련친구들	김해시 가락로 41, 4층
	가야글로벌센터	김해시 동상동 917, 6층
	(사)글로벌드림다문화연구소	김해시 호계로 473 2·3층
	경남이주민문화센터 라함	김해시 서상동 156-1, 2층
	(사)서원다문화행복나눔센터	김해시 분성로364번길 1
진영읍	가족센터진영사업소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56
	김해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 78

#### 4. 소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중앙정부와 김해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먼저, 중앙정부의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정책과 사업 현황의 한계점이다. 첫째, ‘용어’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각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다문화청소년’ 로 분류하여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용어도 제각기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자 선정과 지원 범위도 각 부처별로 달리하고 있다. 둘째, 정책 지원 대상자가 모든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교육 위주 교육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지체 지원을 하기 위한 별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다. 법 적용이 선별적이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위주의 한계적 지원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아동권리협약에 반하는 행위로 한국정부가 지적받은 바도 있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전담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각 부처

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기관들은 가족 또는 가정 프레임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개인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덕희(2016)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 입국한 후 가장 힘든 상황이 한국어 문제, 체류자격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단순 공교육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언어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독자적 시도가 요구된다. 이에 김해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개별적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김해지역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지역적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별 지원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 ‘사업의 중복성’이다. 이런 문제점 지적은 선행연구(여성가족부,2010:9, 장임숙, 2013 재인용)에서도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부처와 관련된 지자체 내 여러 부서가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 ‘접근성’의 한계이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대부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해시 경우도 지원정책을 지역 내 시행하는 기관을 살펴보니 기관 10곳 정도이다. 우선, 10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김해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분포하는 지역적 현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외곽지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의 어려움이다. 김해시 지역적 특징으로 중소도시와 읍면동이 혼합된 도농도시 형태라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비해 교통 이동선이 불편하다는 점과 위탁 또는 지정된 기관이 포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 전담 기관이 김해지역 비영리기관 10곳 중 1곳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입국시기가 1년 이내인 이주배경청소년 중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 기회를 많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입국시기 1년 이내는 관계자 표현으로는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한국 생활 적응에 결정을 미치는 시기라고 한다. 하지만 김해시 외곽지 기관 분포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김해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지원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

## V. 양적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정적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통합과정을 단계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선행연구와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1차 설문지를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와 연구진 회의, 설문지 수정을 반복하여 설문조사에 활용할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전문 자문위원의 자문과 연구진 회의를 거쳐 질적 조사를 위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 대상자는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sup>16)</sup>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유형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 중도입국, 외국인, 탈북관련 청소년 등) 유형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발달 및 적응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본 조사의 조사 영역 및 변인을 선정하는데 활용하였다. 설문조사(Offline Survey)기간은 2023년 7월 14일(월)부터 시작되어, 김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27일(수)까지 진행되었다.

표집방법은 시간과 비용, 대상자 선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확률 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 중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김해지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김해 징검다리센터 등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비영리기관의 사정에 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배제되는 한계점이 발생되었다.

16)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의 한계점을 가짐. 중고등학생과 만20세까지가 조사 대상자였음.

이러한 조사 대상자와 연령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FGI) 연구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따라서 양적연구에서 선택한 최종 설문지는 중복응답, 개인정보 비동의,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 해당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오프라인 설문지 총 151부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조사 문항 구성

문헌조사를 통하여 심리사회적응과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단의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심리사회적응척도’를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개발한 심리사회적응 척도지는 2021년 1차 개발, 2022년 수정·보완한 2차 개발를 통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한 설문지이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 실력의 차이로 인한 설문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타당도 검정을 마친 설문 문항을 함께 활용하였다. 전체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연구자 외 현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설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설문내용을 선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설문 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 심리적응, 관계적응, 진로및 학업적응 4개 영역에 한국어(8), 생활양식(9), 또래관계(2), 지지자원(2), 내재화(4), 외현화(3), 진로 및 학업수행능력(7) 등 8개 하위 영역과 일반적 사항(7)로 모두 4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과 같다.

<표 V-1> 설문조사 문항구성

영역	조사항목	세부항목	문항 수
문화적응	한국어 수준	1) 말하기	8문항/ 5점척도
		2) 쓰기	
		3) 읽기	
		4) 듣기	
	생활환경 적응	1) 한국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8문항/ 5점척도
		2) 한국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3) 한국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4) 존댓말하기 등 한국에서의 예의범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한국에서 혼자서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	
		6)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7)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나 119에 전화하는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8) 앞으로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	
심리적 적응	내재화 심리적응	1)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	4문항/ 5점척도
		2) 나는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3)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4)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외현화 심리적응	1)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3문항/5점 척도
		2) 나는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3)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관계 적응	또래관계	1)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국에 3명 이상 있다	4문항/ 5점척도
		2)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	
		3)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4) 한국에서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운동, 영화관람, 여행 등)를 함께할 사람이 있다	
진로 및학 업적 응	관심정도	1) 일반학교 진학	7문항/ 5점척도
		2) 취업	
		3) 영주권 획득, 국적 취득	
		4) 검정고시	
		5) 어학프로그램(토픽시험, 어학원 등)	
		6) 기술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7) 진로교육프로그램	
일반 사항	일반적인 사항	1) 성별	7문항
		2) 출생국	
		3) 현재 몇 학년인가요?	
		4)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시기는 언제인가?	
		5) 한국어학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던 경험 유무	
		6) 출생년도: 태어난 년도	
		7) 가족유형	

### 3) 분석 방법

분석방법은 오프라인을 통하여 확보한 설문지 총 151부를 코딩처리한 후, 본 조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coding)한 다음 통계적인 자료 분석을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변수별 기초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과 기술분석(평균, 표준편차)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T-Test)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활용하였다.

## 2. 연구분석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남학생 61명(40.4%), 여학생 90명(59.6%)로 나타났다. ‘출신국가’ 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 러시아가 79명(52.31)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22명(14.6%), 카자흐스탄 20명(13.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태국, 시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 대상자가 초 3년부터 중 3년까지로, ‘중학생’은 47명(31.13%), ‘초등학생’ 103명(68.21%), ‘학교다니지 않음’ 1명(0.66%)로 나타났다. ‘입국시기’에 대한 분석 결과, ‘5년이하(2020년이후 입국자)’ 69명(45.870%), ‘3년이하(2021년이후)’ 66명(43.71%), ‘10년이하(2013년이후)’ 13명(8.60%), ‘10년초과(2012년이전)’ 3명(1.99%)로 나타났다. 입국시기가 5년이하 대상자가 89.41%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다’가 69명(45.7%), 참여 경험이 ‘없다’ 82명(53.3%)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통합적 접근을 위해, 사회통합적 접근의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출생년도’를 살펴 본 결과, 2010년이전 출생자가 79명, 2011년이후 출생자는 72명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부(모)하고만 사는 경우’ 또는 ‘부(모), 형제(자매)와 사는 경우’ 37명(24.50%), ‘부모, 형제/자매/조부모/친인척’ 109명(72.19%),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3명(1.99%), 기타 2명(1.32%)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부모 및 형제(자매)외 친인척과 함께 사는 유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2>과 같다.

〈표 V-2〉 일반적 특성 분포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61	40.4	
	여	90	59.6	
	전체	151	100.0	
출신 국가	러시아	79	52.31	
	베트남	4	2.65	
	시리아	1	0.66	
	우즈베키스탄	22	14.6	
	우크라이나	7	4.63	
	인도네시아	1	0.66	
	중국	1	0.66	
	카자흐스탄	20	13.25	
	키르기스스탄	2	1.32	
	태국	2	1.32	
	한국	1	0.66	
	기타	11	7.28	
	전체	151	100.0	
	학년	초등학생(3학년~6학년)	103	68.21
		중학생(1학년~3학년)	47	31.13
학교다니지 않음 <sup>17)</sup>		1	0.66	
전체		151	100.0	
입국 시기	2000년이전 입국(10년초과)	3	1.99	
	2013년이후 입국(10년이하)	13	8.60	
	2020년이후 입국(5년이하)	69	45.70	
	2021년이후 입국(3년이하)	66	43.71	
	전체	151	100.0	
프로 그램 경험	있다	69	45.70	
	없다	82	53.30	
	전체	151	100.0	
출생 연도 <sup>18)</sup>	2010년 이전 출생	79	52.3	
	2011년 이후 출생	72	47.7	
	전체	151	100.0	
가족 유형	부 또는 모/ 형제/자매	37	24.50	
	부모, 형제/자매/조부모/친인척	109	72.19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3	1.99	
	기 타	2	1.32	
	전체	151	100.0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분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으며, 출신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으로 8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으며, 입국시기가 5년이하 대상자가 89.41%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참여 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는 2010년 이전 출생이 79명, 2011년 이후 출생은

17) 출생연도 2003년생임

18) 2010년이전 출생자 범위는 2006년생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2003년생 1명 있음

72명으로 출생년도와 학년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유형은 71.52%를 차지하는 ‘부모와 그 외 가족들이 함께 사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문항에 관한 빈도분석

### (1) 문화적응 정도 분포

#### ① 언어적 수준

문화적응 정도를 알기 위해, 언어수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문항으로 조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하기’ 수준은 말을 걸 수 있는 수준은 ‘잘하는 편이다’ 46명, ‘매우 잘한다’ 32명, ‘보통이다’ 51명, ‘못하는 편이다’ 15명, ‘전혀 못 한다’ 7명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등을 이용한 대화 수준은 ‘보통이다’ 48명, ‘잘하는 편이다’ 40명, ‘못하는 편이다’ 34명, ‘매우 잘한다’ 20명, ‘전혀 못 한다’ 9명으로 나타났다.

‘쓰기’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가능 수준’에서는 ‘잘하는 편이다’ 60명, ‘보통이다’ 42명, ‘매우 잘한다’ 28명, ‘못하는 편이다’ 15명, ‘전혀 못 한다’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가 신청서 등 서류작성’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보통이다’ 54명, ‘잘하는 편이다’ 42명, ‘못하는 편이다’ 25명, ‘매우 잘한다’ 17명, ‘전혀 못 하는 편이다’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읽기’ 수준에 대한 분석은 ‘책, 잡지 등 읽는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매우 잘한다’와 ‘보통이다’에서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잘하는 편이다’ 37명, ‘못하는 편이다’ 17명, ‘전혀 못 한다’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지판, 간판 등 읽는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잘하는 편이다’ 44명, ‘매우 잘한다’ 40명, ‘보통이다’ 36명, ‘못하는 편이다’ 20명, ‘전혀 못 한다’ 11명으로 나타났다.

‘듣기’ 수준에 대한 분석은 ‘노래 가사 듣고 이해’ 수준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보통이다’ 58명, ‘못 하는 편이다’ 29명, ‘잘하는 편이다’ 27명, ‘매우 잘한다’ 22명, ‘전혀 못 한다’ 15명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영화 대사 이해’ 수준 정도 분석 결과, ‘보통이다’ 55명, ‘잘하는

편이다 ‘ 39명, ’ 매우 잘한다 ‘ 23명, ’ 못하는 편이다 ‘ 21명, ’ 전혀 못한다 ‘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3>과 같다.

<표 V-3> 문화적응(한국어 수준) 정도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문화적응 / 한국어 수준	말하기	한국어로 말을 걸수 있다	전혀 못 한다	7	4.6
			못하는 편이다	15	9.9
			보통이다	51	33.8
			잘하는 편이다	46	30.5
			매우 잘한다	32	21.2
			전체	151	100.0
	말하기	한국어로 전화/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9	6.0
			못하는 편이다	34	22.7
			보통이다	48	31.3
			잘하는 편이다	40	26.7
			매우 잘한다	20	13.3
			전체	151	100.0
	쓰기	한국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6	4.0
			못하는 편이다	15	9.9
			보통이다	42	27.8
			잘하는 편이다	60	39.7
			매우 잘한다	28	18.5
			전체	151	100.0
쓰기		한국어로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13	8.6
			못하는 편이다	25	16.6
			보통이다	54	35.8
			잘하는 편이다	42	27.8
			매우 잘한다	17	11.3
			전체	151	100.0
읽기	한국어로 된 잡지, 책, 인터넷 기사 등을 읽을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13	8.6	
		못하는 편이다	17	11.3	
		보통이다	42	27.8	

듣기		잘하는 편이다	37	24.5
		매우 잘한다	42	27.8
		전체	151	100.0
	한국어로 된 생활정보지나 표지판, 간판 등을 읽을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11	7.3
		못하는 편이다	20	13.2
		보통이다	36	23.8
		잘하는 편이다	44	29.1
		매우 잘한다	40	26.5
		전체	151	100.0
	한국어 노래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15	9.9
		못하는 편이다	29	19.2
		보통이다	58	38.4
잘하는 편이다		27	17.9	
매우 잘한다		22	14.6	
전체		151	100.0	
한국드라마, 영화의 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13	8.6	
	못하는 편이다	21	13.9	
	보통이다	55	36.4	
	잘하는 편이다	39	25.8	
	매우 잘한다	23	15.2	
	전체	151	100.0	

분석 결과 살펴보면, 문화적응(한국어 수준) 정도에 대하여 ‘잘하는 수준’ 이상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응답자 151명 중 ‘읽기’가 82명으로, ‘쓰기’ 74명, ‘말하기’ 69명, ‘듣기’ 56명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한국어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생활양식 적응

‘생각을 표현하는데 잘하는 편이다’ 55명(37.2%), ‘내 생각 표현은 보통 수준이다’ 39명(26.4%), ‘내 생각을 매우 잘한다’ 32명(21.6%), ‘내 생각

표현을 못하는 편이다’ 16명(10.8%, ‘내 생각표현을 전혀 못 한다’ 6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4>와 같다.

<표 V-4> 문화적응(생활양식) 정도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문화적응 2	한국에 사는 당신은 어떠한 모습	내 생각 표현의 수준	전혀 못 한다	6	4.1
			못하는 편이다	16	10.8
			보통이다	39	26.4
			잘하는 편이다	55	37.2
			매우 잘한다	32	21.6
			전체	148	100.0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수준 정도	전혀 못 한다	13	8.8
			못하는 편이다	19	12.9
			보통이다	40	27.2
			잘하는 편이다	47	32.0
			매우 잘한다	28	19.0
			전체	147	100.0
		한국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 등)적응 정도	전혀 못 한다	5	3.4
			못하는 편이다	22	14.9
			보통이다	55	37.2
			잘하는 편이다	44	29.7
			매우 잘한다	22	14.9
			전체	148	100.0
		존댓말하기 등 한국에서의 예의범절 이해 정도	전혀 못 한다	1	.7
			못하는 편이다	11	7.5
			보통이다	41	27.9
			잘하는 편이다	51	34.7
			매우 잘한다	43	29.3
			전체	147	100.0
혼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준 정도	전혀 못 한다	2	1.4		
	못하는 편이다	4	2.7		
	보통이다	27	18.2		



		잘하는 편이다	47	31.8
		매우 잘한다	68	45.9
		전체	148	100.0
	필요한 정보 획득 수준 정도	전혀 못 한다	2	1.4
		못하는 편이다	11	7.4
		보통이다	49	33.1
		잘하는 편이다	53	35.8
		매우 잘한다	33	22.3
		전체	148	100.0
	112나 119등 이용방법 가능정도	전혀 못 한다	17	11.5
		못하는 편이다	29	19.6
		보통이다	40	27.0
		잘하는 편이다	34	23.0
		매우 잘한다	28	18.9
		전체	148	100.0
	생활 적응 정도	전혀 못 한다	1	.7
		못하는 편이다	9	6.1
		보통이다	21	14.2
잘하는 편이다		48	32.4	
매우 잘한다		69	46.6	
전체		148	100.0	

종합적 분석을 정리해 보면, ‘잘하는 수준’ 이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응답자 151명 중 ‘생활적응 정도’ 수준은 1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 물건을 살 수 있는’ 115명으로, ‘한국 예의범절 이해 정도’ 94명, ‘내 생각 표현’은 87명, ‘대중교통수단 이용’ 75명으로 문화적응(생활양식)에 대한 수준정도가 ‘잘하는 편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문화 적응’ 과 ‘112나 119 등 이용방법 가능’ 에서는 과반수 이하로 나타났다.

#### (2) 심리적응 정도 분포(내재화)

심리적 적응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

이다’,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먼저, ‘한국 삶의 즐거움’ 에서 ‘매우 즐겁다’ 8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좀 즐겁다’ 43명, ‘보통이다’ 14명, ‘즐겁지 않다’ 와 ‘전혀 즐겁지 않다’ 각 2명과 4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분석 결과는, 생각한다 ‘는 는’ 보통이다 ‘ 64명, ‘ 잘하는 편이다 ‘ 37명, ‘ 못하는 편이다 ‘ 25명, ‘ 전혀 못 한다 ‘ 13명, ‘ 매우 잘한다 ‘ 12명 순으로 나타났다. ‘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에 대한 분석 결과는, ‘ 보통이다 ‘ 50명, ‘ 매우 잘한다 ‘ 42명, ‘ 잘하는 편이다 ‘ 32명, ‘ 못하는 편이다 ‘ 20명, ‘ 전혀 못 한다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에 대한 분석 결과는, ‘ 잘하는 편이다 ‘ 61명, ‘ 보통이다 ‘ 40명, ‘ 매우 잘한다 ‘ 37명, ‘ 못하는 편이다 ‘ 11명, ‘ 전혀 못 한다 ‘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5>와 같다.

<표 V-5> 심리적 적응 정도 분포(내재화)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심 리 적 응 정 도	1)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	전혀 즐겁지않다	4	2.6
		즐겁지 않다	2	1.3
		보통이다	14	9.3
		좀 즐겁다	43	28.5
		매우 즐겁다	88	58.3
		전체	151	100.0
	2) 나는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혀 못 한다	13	8.6
		못하는 편이다	25	16.6
		보통이다	64	42.4
		잘하는 편이다	37	24.5
		매우 잘한다	12	7.9
		전체	151	100.0
	3)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전혀 못 한다	7	4.6
		못하는 편이다	20	13.3
		보통이다	50	33.1
		잘하는 편이다	32	21.2
		매우 잘한다	42	27.8

		전체	151	100.0
4)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전혀 못 한다	2	1.3
		못하는 편이다	11	7.3
		보통이다	40	26.5
		잘하는 편이다	61	40.4
		매우 잘한다	37	24.5
		전체	151	100.0

심리적응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즉, 한국 삶의 만족도 131명, 문제해결 능력정도에서는 98명 자신의 소중함 정도는 74명, 자신의 일처리 능력 수준정도에서는 49명 순으로 자신의 내면적 긍정적인 심리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3) 심리적응(외현화) 분포

외현적인 심리적응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준비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잘하는 편이다’ 70명, ‘매우 잘한다’ 48명, ‘보통이다’ 22명, ‘못하는 편이다’는 6명, ‘전혀 못 한다’ 5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에 대한 분석 결과, ‘잘하는 편이다’ 59명, ‘보통이다’ 54명, ‘매우 잘한다’ 25명, ‘못하는 편이다’ 10명, ‘전혀 못 한다’ 3명 순으로 분포정도를 보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에 관한 분석 결과는 ‘잘하는 편이다’ 59명, ‘매우 잘한다’ 51명, ‘보통이다’ 27명, ‘못하는 편이다’ 10명, ‘전혀 못 한다’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6>과 같다.

<표 V-6> 심리적 적응 정도 분포(외현화)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1)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전혀 못 한다	5	3.3
	못하는 편이다	6	4.0
	보통이다	22	14.6

	잘하는 편이다	70	46.4
	매우 잘한다	48	31.8
	전체	151	100.0
2) 나는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전혀 못 한다	3	2.0
	못하는 편이다	10	6.6
	보통이다	54	35.8
	잘하는 편이다	59	39.1
	매우 잘한다	25	16.6
	전체	151	100.0
3)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전혀 못 한다	4	2.6
	못하는 편이다	10	6.6
	보통이다	27	17.9
	잘하는 편이다	59	39.1
	매우 잘한다	51	33.8
	전체	151	100.0

분석 결과, 긍정적인 외현적인 심리적 적응 정도 대체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외현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미래에 하고 싶은 것에 생각하는 정도가 118명으로 78.2%에 이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능동적 활동이 84명으로 55.7%를 나타내고 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배우는 자발적인 활동은 110명, 72.9%를 차지하고 있다.

#### (4) 관계적응 빈도분석

관계적응 수준을 분석한 결과, 먼저 '나는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3명 이상이다' '매우 그렇다' 66명, '그렇다' 44명, '보통이다' 20명, '그렇지 않다' 14명, '전혀 그렇지 않다' 7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 는 '매우 그렇다' 81명, '그렇다' 34명, '보통이다' 19명, '그렇지 않다' 8명, '전혀 그렇지 않다' 9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경우, '매우 그렇다' 66명, '그렇다' 40명, '보통이다' 29명, '그렇지 않다' 9명, '전혀 그렇지 않다'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말에 운동, 영화관람 등을 함께 할 사

람이 있다’는 ‘매우 그렇다’ 76명, ‘그렇다’ 37명, ‘보통이다’ 25명, ‘그렇지 않다’ 10명, ‘그렇지 않다’ 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7>와 같다.

<표 V-7> 관계적응 수준 분포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1)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국에 3명 이상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b>7</b>	<b>4.6</b>
	그렇지 않다	<b>14</b>	<b>9.3</b>
	보통이다	<b>20</b>	<b>13.2</b>
	그렇다	<b>44</b>	<b>29.1</b>
	매우 그렇다	<b>66</b>	<b>43.7</b>
	전체	<b>151</b>	<b>100.0</b>
2) 나는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b>9</b>	<b>6.0</b>
	그렇지 않다	<b>8</b>	<b>5.3</b>
	보통이다	<b>19</b>	<b>12.6</b>
	그렇다	<b>34</b>	<b>22.5</b>
	매우 그렇다	<b>81</b>	<b>53.6</b>
	전체	<b>151</b>	<b>100.0</b>
3) 나는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b>7</b>	<b>4.6</b>
	그렇지 않다	<b>9</b>	<b>6.0</b>
	보통이다	<b>29</b>	<b>19.2</b>
	그렇다	<b>40</b>	<b>26.5</b>
	매우 그렇다	<b>66</b>	<b>43.7</b>
	전체	<b>151</b>	<b>100.0</b>
4) 나는 한국에서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운동, 영화관람, 여행 등)를 함께할 사람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b>3</b>	<b>2.0</b>
	그렇지 않다	<b>10</b>	<b>6.6</b>
	보통이다	<b>25</b>	<b>16.6</b>
	그렇다	<b>37</b>	<b>24.5</b>
	매우 그렇다	<b>76</b>	<b>50.3</b>
	전체	<b>151</b>	<b>100.0</b>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관계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3명이상 있다’의 경우 110명, 72.8%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 하는 경우는 115명, 76.1% 수준을 나타내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다’ 106명, 70.2%, ‘주말에 함께 운동, 영화관람 할 사람이 있다’ 에 113명, 74.8%로 나타났다. 관계적응 수준 정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73.47%임을 알 수 있다.

(5)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정도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교 진학’ 관심정도에 대한 분석 내용은 ‘그렇다’ 54명, ‘매우 그렇다’ 48명, ‘보통이다’ 37명, ‘그렇지 않다’ 7명, ‘전혀 그렇지 않다’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심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렇다’ 53명, ‘매우 그렇다’ 42명, ‘보통이다’ 35명,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 ‘그렇지 않다’ 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 관심정도 분석 결과는 ‘그렇다’ 56명, ‘매우 그렇다’ 50명, ‘보통이다’ 35명, ‘전혀 그렇지 않다’ 7명, ‘그렇지 않다’ 3명순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에 대한 관심정도 분석 결과는 ‘그렇다’ 50명, ‘보통이다’ 41명, ‘매우 그렇다’ 35명, ‘전혀 그렇지 않다’ 16명, ‘그렇지 않다’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어학원 프로그램 ‘에 대한 관심정도 분석 결과는 ’ 그렇다 ‘ 54명, ’ 매우 그렇다 ‘ 42명, ’ 보통이다 ‘ 36명, ’ 그렇지 않다 ‘ 12명, ’ 전혀 그렇지 않다 ‘ 7명 순으로 나타났다. ’ 기술교육 또는 직업훈련 자격증 ‘ 관심정도는 ’ 그렇다 ‘ 53명, ’ 보통이다 ‘ 48명, ’ 매우 그렇다 ‘ 31명, ’ 그렇지 않다 ‘ 13명, ’ 전혀 그렇지 않다 ‘ 6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진로교육 프로그램 ‘ 관심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 보통이다 ‘ 60명, ’ 그렇다 ‘ 45명, ’ 매우 그렇다 ‘ 30명, ’ 그렇지 않다 ‘ 10명, ’ 전혀 그렇지 않다 ‘ 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8>와 같다.

<표 V-8>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 정도

문항	하위문항	빈도(명)	퍼센트(%)
일반학교 진학	전혀 그렇지 않다	5	3.3
	그렇지 않다	7	4.6
	보통이다	37	24.5
	그렇다	54	35.8
	매우 그렇다	48	31.8
	전체	151	100.0

취업	전혀 그렇지 않다	12	7.9
	그렇지 않다	9	6.0
	보통이다	35	23.2
	그렇다	53	35.1
	매우 그렇다	42	27.8
	전체	151	100.0
영주권 획득, 국적 취득	전혀 그렇지 않다	7	4.6
	그렇지 않다	3	2.0
	보통이다	35	23.2
	그렇다	56	37.1
	매우 그렇다	50	33.1
	전체	151	100.0
검정고시	전혀 그렇지 않다	16	10.6
	그렇지 않다	9	6.0
	보통이다	41	27.2
	그렇다	50	33.1
	매우 그렇다	35	23.2
	전체	151	100.0
어학프로그램 (토픽시험, 어학원 등)	전혀 그렇지 않다	7	4.6
	그렇지 않다	12	7.9
	보통이다	36	23.8
	그렇다	54	35.8
	매우 그렇다	42	27.8
	전체	151	100.0
기술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전혀 그렇지 않다	6	4.0
	그렇지 않다	13	8.6
	보통이다	48	31.8
	그렇다	53	35.1
	매우 그렇다	31	20.5
	전체	151	100.0
진로교육프로 그램	전혀 그렇지 않다	6	4.0
	그렇지 않다	10	6.6
	보통이다	60	39.7
	그렇다	45	29.8
	매우 그렇다	30	19.9
	전체	151	100.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관심 정도는 ‘국적 취득’ 이 106명이 응답하여 가장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반학교 진학’ 102명, ‘어학원 등의 프로그램’ 96명, ‘취업’ 이 9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검정고시,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 진로교육 프로그램 순으로 관심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 수준 분포가 다른 주요 문항

에 비해 관심 수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응답자 연령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향후 조사대상자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 3)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정

일반적 특성(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경험여부, 가족유형)과 주요 항목에 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적응에 관한 차이검정

##### ① 언어적 수준

먼저, ‘성별’ 간의 언어적 수준에 대한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언어 수준이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하기(-2.141), 듣기(-2.479)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어로 말을 걸수 있다’ t(2.141), p(0.034), ‘한국어로 전화/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t(2.479), p(0.014), ‘한국어 노래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t(2.291) p(0.023), ‘한국드라마, 영화의 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t(2.574), p(0.01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입국시기’에 대한 언어적 수준 차이는 언어 수준 정도(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으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국시기가 1년이하 대상자는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대상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의 구분 대상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 분석 결과는 1년이하 대상자는 3년이하보다 -1.434, 5년이하는 -1.760, 7년이하보다는 -1.897, 10년이하보다는 -1.962로 평균 차이를 보였다. 특히 청소년들 입국시기가 1년 전후가 문화적응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언어 수준 차이 검정 분석 결과,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언어 수준’ 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하기 영역 2항목에서 2.793(0.006), 2.580(0.011)로 각각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쓰기 영역에서는 ‘서류 작성’ 수준에서만 2.184(0.03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읽기에서는 ‘표지판, 간판 일기’ 수준에서만 2.667(0.009)



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듣기에서는 2.802(0.006), 2.275(0.024)로 하위항목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언어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프로그램 참여 경험있는 응답자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언어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족 유형’ 과 언어수준 차이 검정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9>과 같다.

<표 V-9> 문화적응(한국어 수준) 차이검정

항목	구분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a	b	c	d	e	f	g	h
성별	M	3.54	3.19	3.59	3.17	3.52	3.54	3.08	3.25
	SD	1.076	1.110	1.028	1.104	1.248	1.221	1.163	1.139
	t(P)	<b>2.141*</b>	<b>2.479*</b>	<b>1.946</b>	<b>1.832</b>	<b>1.946</b>	<b>1.657</b>	<b>2.291*</b>	<b>2.574*</b>
입국 시기 <sup>19)</sup>	M	3.54	3.19	3.59	3.17	3.52	3.54	3.08	3.25
	SD	1.076	1.110	1.028	1.104	1.248	1.221	1.163	1.139
	F(p)	9.120 ***	4.293 **	2.813 **	7.751 ***	5.507 ***	4.551 **	4.193 **	5.680 ***
프로그램 참여	M	3.54	3.19	3.59	3.17	3.52	3.54	3.08	3.25
	SD	1.076	1.110	1.028	1.104	1.248	1.221	1.163	1.139
	t(p)	2.793 **	2.580 *	1.489	2.184 *	1.227	2.667 **	2.802 **	2.275 *
가족 유형	M	3.54	3.19	3.59	3.17	3.52	3.54	3.08	3.25
	SD	1.076	1.110	1.028	1.104	1.248	1.221	1.163	1.139
	F(p)	1.356	.899	.598	2.471	.650	.337	2.411	1.347

\*주,

- a. 한국어로 말을 걸수 있다 b.한국어로 전화/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 c. 한국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 d. 한국어로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e. 한국어로 된 잡지, 책, 인터넷 기사 등을 읽을 수 있다
- f. 한국어로 된 생활정보지나 표지판, 간판 등을 읽을 수 있다
- g. 한국어 노래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h.한국드라마, 영화의 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국어 수준에 대한 차이는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평균으로 차이르 보였고, 1년이하 대상자는 입국시기가 빠를수록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으며,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한국어 수준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입국시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3년이하’를 ‘1년이하’와 ‘3년이하’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음

② 생활양식

‘성별’의 평균 비교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생활 속 문화적응 정도가 낮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 ‘한국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 등)적응 정도’, ‘존댓말하기 등 예의범절 이해 정도’, ‘혼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필요한 정보 획득 수준 정도’, ‘112나 119 이용방법 이해정도’ 하위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남녀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 분석 결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 -0.419, ‘한국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 등) 이해 정도’ -0.661, ‘존댓말하기’ 등 예의범절 이해 정도’ -0.371, ‘혼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0.316, ‘필요한 정보 획득 수준’ -0.529, ‘112나 119 이용방법 이해’ -0.476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입국시기’에 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문화 이해 정도가  $F(2.284), p(0.49)$ , ‘혼자서 물건 살 수 있는 정도’  $F(4.454), p(0.001)$ , ‘한국 생활 적응 잘 할 수 있다’  $F(2.426), p(0.38)$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프로그램 경험’과 차이검정을 분석한 결과, ‘112 또는 119 이용방법 이해 정도’ 2.132(0.35)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고자 사후검정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의미한 집단의 표집수가 작아서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하다고 어렵고 해석하고 할 수 있다. ‘가족 유형’과 차이검정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0>과 같다.

<표 V-10> 문화적응(생활양식) 차이검정

항목	구분	a	b	c	d	e	f	g	h
성별	M	<b>3.62</b>	<b>3.40</b>	<b>3.38</b>	<b>3.83</b>	<b>4.17</b>	<b>3.71</b>	<b>3.19</b>	<b>4.17</b>
	SD	<b>1.064</b>	<b>1.172</b>	<b>1.012</b>	<b>0.951</b>	<b>0.922</b>	<b>0.942</b>	<b>1.256</b>	<b>0.943</b>
	t( <i>p</i> )	<b>2.245</b>	<b>4.764</b> *	<b>17.192</b> ***	<b>5.720</b> *	<b>4.377</b> *	<b>12.313</b> **	<b>5.373</b> *	<b>1.748</b>
입국 시기	M	<b>3.62</b>	<b>3.40</b>	<b>3.38</b>	<b>3.83</b>	<b>4.17</b>	<b>3.71</b>	<b>3.19</b>	<b>4.17</b>
	SD	<b>1.064</b>	<b>1.172</b>	<b>1.012</b>	<b>.951</b>	<b>.922</b>	<b>.942</b>	<b>1.256</b>	<b>.943</b>

	F(p)	<b>.717</b>	<b>1.649</b>	<b>2.284</b> *	<b>2.097</b>	<b>4.454</b> **	<b>.590</b>	<b>1.684</b>	<b>2.426</b> *
프로 그램 참여	M	<b>3.62</b>	<b>3.40</b>	<b>3.38</b>	<b>3.83</b>	<b>4.17</b>	<b>3.71</b>	<b>3.09</b>	<b>3.19</b>
	SD	<b>1.064</b>	<b>1.172</b>	<b>1.012</b>	<b>.951</b>	<b>.922</b>	<b>.942</b>	<b>1.048</b>	<b>1.256</b>
	t(p)	<b>0.689</b>	<b>0.777</b>	<b>0.961</b>	<b>0.363</b>	<b>0.729</b>	<b>0.364</b>	<b>2.132*</b>	<b>0.366</b>
가족 유형	M	<b>3.62</b>	<b>3.40</b>	<b>3.38</b>	<b>3.83</b>	<b>4.17</b>	<b>3.71</b>	<b>3.19</b>	<b>4.17</b>
	SD	<b>1.064</b>	<b>1.172</b>	<b>1.012</b>	<b>.951</b>	<b>.922</b>	<b>.942</b>	<b>1.256</b>	<b>.943</b>
	F(p)	<b>1.680</b>	<b>.009</b>	<b>.923</b>	<b>.619</b>	<b>.546</b>	<b>.548</b>	<b>.936</b>	<b>1.087</b>

\*주,

- |                            |                         |
|----------------------------|-------------------------|
| a. 내 생각 표현의 수준 정도          | e. 혼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준 정도 |
| b.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수준 정도    | f. 필요한 정보 획득 수준 정도      |
| c. 한국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 등)적응 정도 | g. 112나 119등 이용방법 이해 정도 |
| d. 존댓말하기 등 한국의 예의범절 이해 정도  | h. 앞으로 한국생활 적응 기대 정도    |

분석 결과, 문화 적응 중 ‘생활양식’에서는 ‘성별’과 ‘입국시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과 ‘입국시기’에 따른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안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심리적응에 관한 차이검정

‘성별’에 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 남녀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정응 수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t(2.032), p(0.44),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t(2.046), p(0.43),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t(4.092), p(0.00),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t(2.329), p(0.21),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t(2.635), p(0.09)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입국시기’에 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 ‘스스로 문제해결 가능하다’에서 F(4.583). p(0.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사후검정 결과,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에서 ‘1년이하’ 대상자와 ‘3년이

하’, ‘10년이하’ 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t(2.867)$ ,  $p(0.005)$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 외 주요 항목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1>와 같다.

<표 V-11> 심리적응 정도 차이검정

항목	구분	내재화				외현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성별	M	<b>4.36</b>	<b>2.98</b>	<b>3.31</b>	<b>3.61</b>	<b>3.62</b>	<b>3.41</b>	<b>3.69</b>
	SD	<b>0.91</b>	<b>1.15</b>	<b>1.22</b>	<b>1.05</b>	<b>1.051</b>	<b>.955</b>	<b>1.041</b>
	t(p)	<b>0.260</b>	<b>0.805</b>	<b>2.032*</b>	<b>2.046*</b>	<b>4.092***</b>	<b>2.329*</b>	<b>2.635**</b>
입국시기	M	<b>4.38</b>	<b>3.07</b>	<b>3.54</b>	<b>3.79</b>	<b>3.99</b>	<b>3.62</b>	<b>3.95</b>
	SD	<b>.908</b>	<b>1.037</b>	<b>1.165</b>	<b>.940</b>	<b>.963</b>	<b>.908</b>	<b>1.012</b>
	F(p)	<b>1.168</b>	<b>1.303</b>	<b>.871</b>	<b>4.583**</b>	<b>.805</b>	<b>1.587</b>	<b>1.208</b>
프로그램 참여	M	<b>4.28</b>	<b>3.03</b>	<b>3.41</b>	<b>3.86</b>	<b>3.83</b>	<b>3.46</b>	<b>3.70</b>
	SD	<b>0.998</b>	<b>1.029</b>	<b>1.217</b>	<b>.974</b>	<b>1.084</b>	<b>.917</b>	<b>1.102</b>
	t(p)	<b>-1.353</b>	<b>-.404</b>	<b>-1.332</b>	<b>.723</b>	<b>-1.978</b>	<b>-1.905</b>	<b>-2.867**</b>
가족형태	M	<b>4.38</b>	<b>3.07</b>	<b>3.54</b>	<b>3.79</b>	<b>3.99</b>	<b>3.62</b>	<b>3.95</b>
	SD	<b>0.908</b>	<b>1.037</b>	<b>1.165</b>	<b>0.940</b>	<b>0.963</b>	<b>0.908</b>	<b>1.012</b>
	F(p)	<b>1.947</b>	<b>.461</b>	<b>.518</b>	<b>1.358</b>	<b>1.177</b>	<b>.372</b>	<b>.274</b>

- 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 ②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③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④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⑥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⑦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분석결과, 성별에서는 내재화 일부 하위 항목과 외현화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입국시기는 내재화 일부 하위 항목에서,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외현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집단 간 차이가 심리적응 하위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관계적응에 관한 차이검정

관계 적응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간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입국시기’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 경우  $F(4.607)$ ,  $p(0.001)$ ,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경우  $F(4.607)$ ,  $p(0.000)$ , ‘한국에서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운동, 영화관람)를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F(4.607)$ ,  $p(0.038)$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가족 유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V-12>와 같다.

<표 V-12> 관계적응 차이검정

항목	구분	a	b	c	d
성별	M	<b>4.08</b>	<b>4.08</b>	<b>3.93</b>	<b>4.08</b>
	SD	<b>1.100</b>	<b>1.242</b>	<b>1.093</b>	<b>1.130</b>
	t( <i>p</i> )	<b>0.881</b>	<b>0.373</b>	<b>0.464</b>	<b>0.614</b>
입국 시기	M	<b>3.98</b>	<b>4.13</b>	<b>3.99</b>	<b>4.15</b>
	SD	<b>1.169</b>	<b>1.185</b>	<b>1.137</b>	<b>1.048</b>
	F( <i>p</i> )	<b>1.686</b>	<b>4.607**</b>	<b>4.891***</b>	<b>2.432*</b>
프로그램 참여	M	<b>3.91</b>	<b>4.13</b>	<b>3.90</b>	<b>4.12</b>
	SD	<b>1.108</b>	<b>1.162</b>	<b>1.202</b>	<b>1.078</b>
	t( <i>p</i> )	<b>0.646</b>	<b>.044</b>	<b>0.874</b>	<b>0.319</b>
가족 유형	M	<b>3.98</b>	<b>4.13</b>	<b>3.99</b>	<b>4.15</b>
	SD	<b>1.169</b>	<b>1.185</b>	<b>1.137</b>	<b>1.048</b>
	F( <i>p</i> )	<b>.794</b>	<b>2.019</b>	<b>.996</b>	<b>1.987</b>

\*주, ①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국에 3명 이상 있다  
 ②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  
 ③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④ 한국에서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운동, 영화관람)를 함께 할 사람이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관계 적응’ 수준에서는 ‘입국 시기’에서 부분별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진로 및 학업 관심 정도 차이검정

‘진로 및 학업 관심정도 차이’ 검정 분석 결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항목은 ‘어학프로그램’  $t(2.032)$ ,  $p(0.04)$ 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t(2.948)$ ,  $p(0.04)$ 에서 나타났다. 남녀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국시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



### 3. 소결

#### 1) 일반적 특성 분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분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으며, 출신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으로 8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으며, 입국시기가 5년 이하 대상자가 89.41%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참여 할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년도는 2010년 이전 출생이 79명, 2011년 이후 출생은 72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유형은 71.52%를 차지하는 ‘부모와 그 외 가족들이 함께 사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항목에 적용 수준

첫째, 문화적응 수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국어 수준’과 ‘생활 양식 적용’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수준’은 ‘잘하는 수준’ 이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응답자 151명 중 ‘읽기’ 수준이 평균 41명(2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쓰기’ 수준 평균은 37명(24.33%), ‘말하기’ 평균 수준은 35명(22.9%), ‘듣기’ 평균 수준이 28명(18.3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수준 정도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생활양식’ 적용 수준 분석 결과, ‘잘하는 수준’ 이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응답자 151명 중 ‘생활적응 정도’ 수준이 1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자 물건을 살 수 있는’ 115명으로, ‘한국 예의범절 이해정도’ 94명, ‘내 생각 표현’은 87명, ‘대중교통수단 이용’ 75명으로 문화적응(생활양식)에 대한 수준정도가 ‘잘하는 편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문화 적용’과 ‘112나 119 등 이용방법 가능’에서는 과반수 이하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응 정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재화 된 심리적응 정

도는 한국 삶의 만족도 131명, 문제해결 능력정도에서는 98명 자신의 소중함 정도는 74명, 자신의 일처리 능력 수준정도에서는 49명 순으로 자신의 내면적 긍정적인 심리정도 나타내고 있다. 긍정적인 외현적인 심리적 적응 정도 대체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외현적으로 신체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미래에 하고 싶은 것에 생각하는 정도가 118명으로 78.2%에 이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능동적 활동이 84명으로 55.7%를 나타내고 있다.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배우는 자발적인 활동은 110명, 72.9%를 차지하고 있다. 심리적 적응 수준은 내면적인 심리 적응 수준보다 외현으로 드러난 신체활동이 적응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관계적응 정도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조사 대상자들의 관계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 3명이상 있다’의 경우 110명, 72.8%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 하는 경우는 115명, 76.1% 수준을 나타내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한 사람이 있다’ 106명, 70.2%, ‘주말에 함께 운동, 영화관람 할 사람이 있다’에 113명, 74.8%로 나타났다. 관계적응 수준 정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73.47%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정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관심 정도는 ‘국적 취득’이 106명이 응답하여 가장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일반학교 진학’ 102명, ‘어학원 등의 프로그램’ 96명, ‘취업’이 9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검정고시, 기술 교육 및 직업훈련, 진로교육 프로그램 순으로 관심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 수준 분포가 다른 주요 문항에 비해 관심 수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응답자 대상자들이 초등 3학년에서 중등3학년이라서 하위 문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 3) 주요 요인에 대한 차이검정

일반적 특성(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경험여부, 가족유형)과 주요 항목에 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정도 차이를 한국어 수준과 생활 양식 적응 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먼저, 언어 수준에 차이를 나타낸 것은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경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되었다.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언어 수준은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입국시기’ 간의 차이는 1년이하와 그 이전에 입국한 대상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년이하 대상자는 3년이하보다 -1,434, 5년이하는 -1,760, 7년이하보다는 -1,897, 10년이하보다는 -1,962로 평균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언어 수준’ 간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학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가 ‘언어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족 유형’과 언어 수준 차이 검정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생활양식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남녀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로이 이동 가능’ -0.419, ‘한국 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등 잘 알고 있다’ -0.661, ‘존댓말하기 등 예의범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0.371, ‘혼자서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 -0.316,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529, ‘112나 119에 전화하는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0.476의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활 속 문화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응 정도의 차이 분석 결과는 먼저, ‘성별’에 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 남녀 집단 간 평균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정응 수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시기’에 대한 차이검정 분석 결과, ‘스스로 문제해결 가능하다’에서  $F(4.583)$ ,  $p(0.001)$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사후검정 결과,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에서 ‘1년이하’ 대상자와 ‘3년이하’, ‘10년이하’ 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t(2.867)$ ,  $p(0.005)$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관계적응 정도의 차이검정 결과는, ‘입국 시기’에서만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진로 및 학업 관심정도 차이검정에서는, ‘성별 ‘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관심정도가 높았고,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서는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어학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관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주요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문화적응과 심리적응 수준에서는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적응 수준은 입국시기에서, 진로 및 학업 관심정도에서는 성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족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VI. 초점집단 인터뷰(FGI)

### 1. 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

#### 1) 초점집단 인터뷰(FGI)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통합적 실천 방안을 알아보는 것에 있어서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통합적 실천 방안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는 구체적이며 변형적인 도식 유형화를 가능하게 함으로 내부자의 시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양적연구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조사 대상자의 한계인 재학 중인 초·중생 위주로 표집된 양적연구의 문제점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과 만 20세 연령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 초점집단 인터뷰(FGI)의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연구 결과물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다. 거시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원인과 결과를 검증하는 가설의 검증은 이미 연구된 이론을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되므로 새로운 발견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박성희, 2023). 그러나 질적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미시영역 연구를 통해 항상 변화하는 새로운 현상의 발견적인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는 많은 양의 자료를 표준화된 통계에 의해서 처리하는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숫자를 이용하여 표준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양적 연구보다 좀 더 개방적인 현상과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ilson, 1973).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는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 학생 간 상호작용을 인터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참여 학생 간 토의와 의견 공유를 통해 합의된 의견 규명에 효과적이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분석은 대상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경험 자료 뿐 아니라 양적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하는 경험의 복잡한 현상과 실제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송지현 외, 2015).

본 연구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통합적 실천 방안에 대한 어떠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사회 통합적 실천 방안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데 초점집단 인터뷰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초점집단 인터뷰(FGD)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과 특성

막스 베버(Max Weber)의 인식관심(Wissenswert)이라는 과학 방법론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어떤 대상을 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신원식 외, 2022).

본 연구는 재학 중인 초·중생 위주로 표집된 양적 연구의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연구자와 실무자의 연구 회의를 거쳐 진영 지역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재학 중인 초·중생을 포함하여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과 학교를 졸업한 만 20세 대상을 포함한 총 1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2명의 청소년들은 인터뷰 참여의사를 거절하여 총 10명의 청소년이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I-1>과 같다.

<표 VII-1>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 참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참여청소년	출생국	학년	입국시기	출생연도	성별
참여청소년1	러시아	중3	2023.03	2009	여
참여청소년2	러시아	학교졸업	2022.11	2003	여
참여청소년3	우크라이나	학교 밖	2022.04	2006	여
참여청소년4	우즈베키스탄	중2	2017.07	2008	여
참여청소년5	러시아	중2	2019.07	2007	여
참여청소년6	우즈베키스탄	중2	2018.10	2008	남
참여청소년7	우즈베키스탄	초6	2016.09	2009	여
참여청소년8	우크라이나	학교 밖	2022.04	2007	여
참여청소년9	우크라이나	학교 밖	2022.07	2010	남
참여청소년10	우즈베키스탄	학교 밖	2023.05	2009	여

#### 4) 초점집단 인터뷰(FGI) 주요 질문 내용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는 재학 중인 초·중생과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김해글로벌센터에서 2023년 7월12일 실시하였다. 재학 중인 초·중생 청소년들의 학교 하교 시간을 고려하여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20분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센터장과 통역 1인이 인터뷰를 참관 및 보조하여 진행되었다.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들은 지면으로 출생국, 학년, 입국시기, 출생년도, 성별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2>과 같다.

<표 VI-2> 초점집단 일반적 특성 문항

문항	내용
1) 이름	(한글명)
1) 출생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러시아 <input type="checkbox"/>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현재 몇 학년인가요?	① 초등학교 ( )학년 ② 중학교 ( )학년 ③ 고등학교 ( )학년 ④ 해당사항없음
4)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_____년 _____월
5)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나요? (한국어학원 등)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6) 출생년도: 태어난 년도	_____년
7)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내용은 본 연구의 양적 연구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회의를 통해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통합적 실천방안에 필요한 문화 적응, 심리적응, 관계적응, 진로 및 학업적응을 중점적으로 나누어 반구조화 질문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3>과 같다.

〈표 VI-3〉 초점집단 인터뷰 질문 내용

구분	내용
입국동기	한국으로 오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문화적응	한국문화에 적응할 때 어떤 어려움은 무엇이며 극복은 어떻게 하였나요?
	한국 문화적응 중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심리적응	한국 사회로부터 본인이 차별의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한국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경우, 본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 극복했는가?
	본인의 한국 사회로의 적응은 어떠한가?
	본인은 한국 사회로의 적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관계적응	한국 생활을 통해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개인적·학업적·신체적·문화적 측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는가?
	한국 생활에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는가?
	한국 사회에 청소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로 및 학업 적응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본인의 느낌은 어떠한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본인의 소속 학교의 관리와 처우는 어떠한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본인의 소속 학교의 관리와 처우는 어떠한가?
	한국에서의 생활 중 어렵고 힘든 순간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했는가?
	한국에서의 생활 중 만족감을 느낄 때는 어떠한 경우인가?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전액, 수업료 감면 등 포함)? 받아본 적이 있다면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가?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어떠한가? 학교에서의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5) 초점집단 인터뷰(FGD) 연구윤리 엄격성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적이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통합적 실천 방안에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위한 연구임을 설명하였다. 인터뷰 참여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질문이 있다면 연구에 참여하기 전이나 혹은 참여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으며 연구가 완료된 후 결과를 공유함을 알렸다.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에는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이나 이름이 연구 결과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계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연구자만이 참여 청소년의 신분을 알고 있음을 알렸다. 본 연구와 관련된 알려진 위험이나 불편은 없으며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혜택으로는 질적 연구를 배우는 경험에 대한 정보, 질적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 세부적인 자료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자와의 공저임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진행과정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였고 서명된 동의서는 한 부는 보관을 하고 한 부는 연구대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이주배경청소년 참가자들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필사하여 정리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을 범주화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에게 이주배경청소년이 참여할 인터뷰의 시간과 장소 및 연구의 목적,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으며 직접 대면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다.

## 2. 연구 분석 결과

### 1) 한국 입국 동기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입국 동기에 대해 부모님을 따라서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입국 동기에 대한 질문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답에 특별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4>과 같다.

<표 VI-4> 한국 입국 동기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을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참여청소년1, 참여청소년5, 참여청소년9)</li> <li>■ 한국으로 돈을 벌려고 오신 부모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참여청소년4, 참여청소년6)</li> <li>■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졸업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으로 일하러 오신 아버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입국하게 되었어요.(참여청소년3, 참여청소년8)</li> <li>■ 미래를 위해 공부하기 위해서(참여청소년10)</li> </ul>

### 2) 문화 적응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 문화 적응과정의 어려움에 공통적으로 언어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하였으며 그로인해 차별받은 다양한 경험을 말해주었다.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문화 적응이나 또래 친구들과의 적응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 한국 친구들이나 한국인과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아 적응과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적응과정의 어려움 극복 방법으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이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었다는 대답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5>과 같다.

20) 졸업자 포함



〈표 VI-5〉 문화 적응 어려움

구분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서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국어로 높임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고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제가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발음이 어눌해서 또래 한국인 친구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울었고, 그 후 담임선생님께 말했더니 놀림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높임말과 같은 한국 예절이 많이 어려웠고, 한국음식은 엄청 좋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러시아 문화와 한국 문화가 달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존댓말, 반말의 차이와 선·후배 관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선생님과 상담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했던 문화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지?'에 대한 의문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어를 조금 배우긴 했지만 한국어를 잘 몰라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이야기할 수 없었고 답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을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딱히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높임말 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sup>20)</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과 러시아는 전통적 가치관이 달라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더 자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2)</li> <li>■ 한국문화 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참여청소년3)</li> <li>■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어려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운 점이 딱히 없습니다.(참여청소년8, 참여청소년9, 참여청소년10)</li> </ul>

### 3) 심리 적응

#### ① 한국 사회 차별

한국 사회로부터 차별 받은 경험에 대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언어가 되지 않아 차별 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

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 내 또래 친구들과  
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도 언어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발  
표를 시키지 않는 등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6>과 같다.

<표 VI-6>심리적응(한국 차별 경험)

구분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끔 친구들이 놀릴 때 차별 받는 느낌이 듭니다.(참여청소년1)</li> <li>■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정도 항상 아니고 가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이유로 놀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공원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모르는 한국인 친구들이 '왜 여기 왔어, 우리 땅이니까 너희 러시아로 돌아가,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를 무조건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하면 차별받는 느낌이 들고 상처를 받는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 있을 때는 차별받는 느낌이 든 적이 있는데, 여기로 오고 부터는 친구들이 착해서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선생님께서 제가 한국어를 못하는 줄 알고 발표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참여시켜주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에서는 차별을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엄마와 제가 옷가게에서 옷을 입어보고 싶었지만 점원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들은 자유롭게 옷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최근에 고혈압으로 아파서 병원을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최고혈압이 170만 되지 않으면 괜찮다고만 말하셨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던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처방받지 못했고, 다시 같은 고압이 있으면 직장에서는 누워있을 수 없는데 그냥 누워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다른 할머니가 진료를 받을 때는 선생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셨었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꼼꼼하게 치료받았는데 엄마는 할머니에 비해 나이가 적어 자세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3)</li> <li>■ 가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차별받는 느낌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차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딱히 없었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② 한국 차별 극복

한국에서의 차별 극복방법으로는 공통적으로 특별한 방법 없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대답을 하였다. 추가 질문에 대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사회는 한국 청소년들의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차별 받은 적이 없다 라는 대답이 대부분 이었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어서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차별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7>과 같다.

<표 VI-7> 심리적응(한국차별 극복)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방법은 없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참여청소년1)</li> <li>■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참여청소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한국 청소년들의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li> <li>■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도 딱히 드리지 않았고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다보니 괜찮아졌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께 말씀 드렸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참여청소년2, 참여청소년10)</li> <li>■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잘 모르겠습니다.(참여청소년9)</li> </ul>

③ 한국 사회의 적응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해 공통적으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차츰 적응하고 시간이 지나니 지금은 많이 익숙해 졌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8>과 같다.

<표 VI-8> 한국 사회의 적응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응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1)</li> <li>■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웠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한국에서 계속 살다보니 괜찮아 졌던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초반에 젓가락질을 못해서 급식을 잘 못 먹어서 숟가락으로 밥을 먹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처음에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좋았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④ 한국 사회 적응 노력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으로는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적응하였다는 대답이 대부분 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9>과 같다.

<표 VI-9>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적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과 한국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학교·학원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했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더욱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참여청소년8, 참여청소년9)</li> <li>■ 시간이 흐르는 대로 적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4) 관계 적응

① 한국 생활 변화

한국 생활을 통해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한국에서는 여러 기회가 더 많고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진로가 바뀌었다, 한국어가 어려워 성적이 떨어졌다 라는 대답을 하였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엄격한 규칙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0>과 같다.

<표 VI-10> 관계적응(한국 생활 변화)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에 있을 때는 공부의 중요성을 못 느꼈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이 귀찮았었는데 한국 학교에서 친구들이 학원을 2~3개씩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꿈도 바뀌었습니다.(참여청소년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요? 예전에는 경찰이나 사업가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제 국적이 러시아라 한국에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li> <li>▷ 혹시 결정된 진로가 있나요? 아직 정확히 결정된 진로는 없습니다.</li> </ul> </li> <li>■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친구들이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주 놀렸는데 한국에오니 친구들이 너무 착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한국에서는 여러 직업에 대해 공부할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회계 프로그래머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데 우크라이나에서 배우던 수학보다 한국에서 배우는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 규칙이 엄격하다 생각했고, 이제는 저도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없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재미있는 한국 생활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② 한국어로 의사소통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이 공통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1>과 같다.

<표 VI-11> 한국어 수준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렵지만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1)</li> <li>■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발음 때문에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짜증나게 되니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네, 답답하고 어려웠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어렵습니다. 단어를 올바른 순서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참여청소년2)</li> <li>■ 네 어렵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잘 모르겠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많이 힘듭니다.(참여청소년10)</li> </ul>

③ 한국 생활 보람

이주배경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들과 안전한 생활을 하며 공부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보람을 느낀 적이 없다고 대답한 청소년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2>과 같다.

<표 VI-12> 한국 생활 보람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보람됩니다.(참여청소년1)</li> <li>■ 한국은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서 좋았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지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나 이사 갈 도시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즐거웠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2)</li> <li>■ 가족과 함께 했을 때, 새로운 친구들 사귀었을 때, 한국어를 배울 때(참여 청소년3)</li> <li>■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참여청소년8)</li> <li>■ 없는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9)</li> </ul>
-------------	--

#### ④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바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인 청소년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답변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3>과 같다.

<표 VI-13>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을 바라보는 편견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외국인 차별 관련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참여 청소년4)</li> <li>■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이 문제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한국사회가 외국인들을 잘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라 여기서 살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참여청소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는가요? 네. 제 남동생이 한국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할 때 반칙을 당했는데, 한국 친구가 자신을 때리면 경찰에 신고한다 해서 반격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 습니다.(한국 청소년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 교</li> </ul> </li> <li>■ 글로벌센터에 한국인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참여청소년8)육의 필요성 강조)</li> <li>■ 다 좋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다 괜찮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센터에 더 많이 방문해서 그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 5) 진로 및 학업적응

### ① 한국 생활

한국 생활에 대한 느낌으로는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살기 좋은 나라이다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일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적응하기도 어렵다는 적응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4>과 같다.

<표 VI-14> 한국 생활 적응

문항	내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깨끗하고 친절해서 좋아요.(참여청소년1)</li> <li>■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4)</li> <li>■ 처음에는 한국이 익숙하지 못해서 부담스럽고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5)</li> <li>■ 우즈베키스탄과 환경도, 사람들의 태도도, 외모도 많이 달라서 신기했었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했고, 한국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국보다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참여청소년2)</li> <li>■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좋습니다.(참여청소년10)</li> <li>■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요.(참여청소년9)</li> </ul>

### ② 학교 생활 적응(관리 및 처우에 대한 인식)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관리와 처우에 대해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언어적인 적응이 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대답과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고 번역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대답도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5>과 같다.



<표 VI-15> 학교 관리 및 처우에 대한 인식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교과과정 위주로 학교생활이 진행되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하면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십니다.(참여청소년4)</li> <li>■ 예전에 학교에서 장학금, 교복 구매비용, 한국어 수업 등을 많이 지원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지원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고, 친구들이 한국어 잘하니깐 너도 이제 한국인이라고 말해줘요.(참여청소년5)</li> <li>■ 학교에서 외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번역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급식을 먹고 교실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때 같이 가주었고, 모르는 부분은 대신 적어주거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참여청소년2, 참여청소년3, 참여청소년8, 참여청소년9, 참여청소년10)</li> </ul>

③ 한국 생활의 어려움

한국에서의 생활 중 어렵고 힘든 순간으로는 공통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워 힘들었던 상황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해 주었고 재학 중인 청소년들은 교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 생활 힘든 순간을 한국어의 어려움에 대해 모두 이야기 하였다. 또한 후속 질문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번역을 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6>과 같다.

<표 VI-16> 한국 생활 어려움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힘들었고 한국어가 안 되어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 어려웠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도, 이해할 줄도 알아서 놀림 받을 때 반박할</li> </ul>

	<p>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습한 날씨 때문에 힘듭니다.(참여청소년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 혼자서 편의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한국을 잘 몰라서 하지 못했고, 돌아다닐 때 외국인이라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또, 제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니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경우가 많았고, 제가 외국인이라도 신경 쓰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 재 외국인이다!'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b>언어를 몰라서</b> 힘들었던 것 빼고는 없었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b>수학과목이 어려워</b>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한국어를 몰라 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웠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다 처음이라서 힘들었고, 한국인들이 <b>대화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해서</b> 힘들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b>언어적인 문제로</b> 센터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순간이 힘든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언어적인 문제로</b>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가요? 번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li> </ul> </li> <li>▪ <b>언어적인 부분이</b> 가장 힘들었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 ④ 학교생활 어려움 극복 방법

학교에서 생활 중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외부에서는 도움을 크게 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극복하였다고 하여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서의 힘든 순간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재학 중 청소년과 공통적인 대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7>과 같다.

<표 VI-17> 학교생활 어려움 극복 방법

문항	내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참여청소년1)</li> <li>▪ 학교나 외부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 놀림 받았을 때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혼내주셨지만 놀림이 멈춘 건 잠시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깐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참여청소년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천히 한국어를 배우고 친구들과 많이 소통하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2)</li> <li>■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한국인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을 제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딱히 없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딱히 없었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공부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힘든 부분을 말할 가족이나 친구/선생님이 있습니까? 네, 엄마, 언니, 한국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합니다.</li> </ul> </li> </ul>

#### ⑤ 한국 생활 만족감

한국이 안전하여 안정감을 느끼며 한국에 적응하여 한국어를 할 수 있고 친구들을 사귄 때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직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과 추가적인 질문으로 활동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봉사, 통역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견과 배우고 싶은 영역으로는 언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제2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8>과 같다.

<표 VI-18> 한국생활 만족감

문항	내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를 점점 더 잘 하고 친구들을 사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참여청소년1)</li> <li>■ 외국인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할 때 재미있고 즐겁습니다.(참여청소년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다면 혹시 (언어를 제외한) 참여하고 싶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요? 봉사, 통역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li> </ul> </li> <li>■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대해줄 때가 좋았고,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직업을 생각 하는 것이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여러 직업들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참여청소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가요? 저는 언어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도 좀 더 배우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나 일본</li> </ul> </li> </ul>

	<p>어를 배우고 싶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이 빨라서 좋습니다.(참여청소년6)</li> <li>■ 한국어를 배우면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잘 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안식처를 찾은 기분입니다.(참여청소년2)</li> <li>■ 나는 한국의 전통을 좋아하고, 한국의 곳곳을 여행할 때 가장 즐겁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을 때, 한국인들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었을 때입니다.(참여청소년8)</li> <li>■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와계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도 좋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 ⑥ 장학금 경험 여부

장학금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만 다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대답하였고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들도 받아 본적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몇몇의 이주배경청소년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받아 보았다는 대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19>과 같다.

<표 VI-19> 장학금 경험

문항	내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참여청소년1, 참여청소년6, 참여청소년7)</li> <li>■ 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습니다.(참여청소년5)</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참여청소년2, 참여청소년3, 참여청소년8, 참여청소년9, 참여청소년10)</li> </ul>

#### ⑦ 한국어 경험 방법(프로그램 경험 여부)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센터에 다닌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한다와 초반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있었다. 추가질문으로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어가

익숙해진 친구들을 위한 심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흥미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20>과 같다.

<표 VI-20> 한국어 경험 방법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합니다.(참여청소년)</li> <li>■ 한국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공부합니다.(참여청소년4)</li> <li>■ 예전에 센터, 학교에서 책도 많이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번역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은 열심히는 안하고 있어요.(참여청소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은 왜 열심히 안하는가요? 초반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데,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숙해진 친구들을 위한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금 흥미를 잃은 것 같습니다.</li> </ul> </li> <li>■ 글로벌 센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6, 참여청소년7)</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선생님과 공부하고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합니다.(참여청소년2)</li> <li>■ 센터 선생님과 러시아 남학생친구, 친구들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글로벌 센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9)</li> <li>■ 글로벌 센터를 다니면서, 센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집에서도 공부하고, 글로벌센터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참여청소년10)</li> </ul>

⑧ 관계 정도(학교 밖 청소년들은 센터에서의 친구, 선생님)

학교(센터)에서 친구와 선생님과 관계가 물었을 때 친구들과 잘 지낸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선생님과 사이도 좋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VI-21>과 같다.

〈표 VI-21〉 관계 정도

문항	내 용
재학 중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선생님이 잘해주십니다.(참여청소년1)</li> <li>■ 농담하고 장난치며 잘 지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참여청소년4)</li> <li>■ 이제는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 해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잘 지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습니다.(참여청소년5)</li> <li>■ 애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좋습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사이가 좋습니다.(참여청소년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교과목이 있는지? 역사, 기가입니다.</li> </ul> </li> </ul>
학교 밖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참여청소년2, 참여청소년10)</li> <li>■ 센터의 친구들과 모두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센터 선생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참여청소년3)</li> <li>■ 좋습니다. 센터 선생님과의 사이는 좋고, 우크라이나에서의 선생님과는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참여청소년8)</li> <li>■ 문제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참여청소년9)</li> </ul>

### 3. 소결

이주배경 청소년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던 본국의 전쟁 또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부모의 입국으로 인해 동반입국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을 하지만 태어나고 자란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왜 생활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은 학교를 가기위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지원과 진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이외에 공교육이나 지자체에서는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진로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학교에서는 학교 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한국어 지원프로그램과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서 적응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생활에서나 학교생활에서 힘든 순간 극복 방법에는 적응과정에 특별히 다른 방법 없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하였다고 한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생활에는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었으며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학교로의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어에 적응을 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심화된 한국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적인 문제 외에 한국인들의 외국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특히 또래 친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통합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에서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하여 먼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통합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 제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다양한 각도의 적응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를 탐색하였다. 이에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분석 결과 요약

먼저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배경청소년의 분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으며, 출신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순으로 8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많았으며, 입국시기가 5년이하 대상자가 89.41%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 참여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는 2010년 이전 출생이 79명, 2011년 이후 출생은 72명으로 구분되었다. 출생연도와 학년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가족 유형은 71.52%를 차지하는 ‘부모와 그 외 가족들이 함께 사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정도 수준’을 요약하면, ‘한국어 수준’은 응답자 151명 중 ‘잘하는 편’ 이상의 수준의 평균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순으로 평균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언어 수준에 차이를 나타낸 것은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경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어 수준이 높았으며, 입국시기가 1년을 기준으로 대상자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한국어 수준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 유형’과 언어수준 차이 검정 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생활양식’에 대한 분석 결과, ‘잘하는 편이다’ 이상은 응답자 151명 중 ‘생활적응을 잘하는 편’ 수준 이상이 11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

활양식 적응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활 속 문화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시기에 따라 한국문화 이해 정도, 혼자서 물건 살 수 있는 정도, 한국 생활 적응 잘 할 수 있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셋째, ‘심리적응 정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내재적 심리적응 정도’ 와 ‘외현적인 심리적 적응 정도’ 는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정 후 일반적 특성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리적응 수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시기’ 는 사후검정 결과, ‘1년이하’ 대상자와 ‘3년이하’, ‘10년이하’ 대상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심리적응 수준은 내면적인 심리 적응 수준보다 외현으로 드러난 신체활동이 적응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관계적응 정도 분석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73.47%로 나타내고,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고 인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내고 있다. 성별의 평균 비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차이검정 분석 결과는 ‘입국 시기’ 에서만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정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관심 수준 분포가 다른 주요 문항에 비해 관심 수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응답자 대상자들이 초등 3학년에서 중등 3학년이라서 하위 문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차이검정 분석 결과, ‘성별’ 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관심 정도가 높았고, ‘프로그램 참여 여부’ 에서는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어학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응답자 보다 관심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응과 심리적응 수준에서는 성별, 입국시기,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적응 수준은 입국시기에서, 진로 및 학업 관심정도에

서는 성별,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족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수준에 대한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평균으로 차이를 보였고, 1년이하 대상자는 입국시기가 빠를수록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으며,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한국어 수준의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수준의 차이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성별)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문화적응, 심리적응, 진로 및 학업 관심정도가 여학생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관계적응 수준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관계적응 정도를 제외한 주요 항목이 한국어 수준 정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점집단 인터뷰(FGI) 연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학생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언어적인 문제와 한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학교에서는 학교 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한국어 지원프로그램과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서 적응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생활에서나 학교생활에서 힘든 순간 극복 방법에는 적응과정에 특별히 다른 방법 없이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하였다고 한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생활에는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었으며 언어적인 문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학교로의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어에 적응을 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심화된 한국어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언어적인 문제 외에 한국인들의 외국인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였고 특히 또래 친구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학교 밖 이주배경청소년은 학교를 가기 위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지원 부족과 진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센터를 통한 한국어 교육 이외에 공교육이나 지자체에서는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진로상담을 받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안정적인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제도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적 심리·사회적 정도를 파악하여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의 촉진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와 양적연구결과, FGI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의 한계이다. 이주배경청소년 분포는 김해 관내 중 진영읍 지역 분포가 매우 높다. 하지만 김해시 내 지원센터를 알아보니 전체 9곳 중으로 김해시내 위치한 기관 7곳, 진영읍에 위치한 기관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은 김해시 거주하는 대상자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런 불편한 점은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관리와 처우에 대해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언어적인 적응이 되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재학 중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대답과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고 번역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대답도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언어학습의 어려움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 지역적 특징으로 중소도시와 읍면동이 혼합된 도농도시형태로 교통편이 대도시보다 부족한 지리적 불평등과 더불어 접근성의 지역 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둘째, ‘입국시기’는 문화적응(한국어 수준, 생활적응)과 심리적응, 관계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한국어 수준의 차이가 문화적응, 심리적응, 진로및학업 관심정도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년 안에 한국어 습득은 한국 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현장 전문가에 의하면, “입국한 후 1년이내가 골든 타임이다” 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입국 후, 한국 생활, 문화, 또래 관계 적응정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한국어 수준’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는 선행연구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배상률(2016)은 언어장벽을 우선

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성공적인 적응과 진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서덕희(2016)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 입국한 후 가장 힘든 상황이 한국어 문제, 체류자격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부족한 한국어 실력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한국을 벗어나 살고 싶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과정의 차별화 프로그램 욕구가 높다.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 결과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초반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있었다. 추가질문으로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어가 익숙해진 친구들을 위한 심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흥미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에 향후 한국어 학습과정을 좀 더 밀도있게 계획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시선의 방향성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초점집단 인터뷰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 사회에 바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은 경험,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학교 내 또래 친구들과의 차별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도 언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표를 시키지 않는 등의 차별이 언급되었다. 우리 의식과 사회 저변에 깔린 이들에 대한 경계와 편견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한국사회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 적시된 것처럼 아동과 청소년들은 국적, 이념, 생김새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로부터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은 다문화국가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김해시 지역민들은 시대의 변화로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사회통합, 공동체의식, 연대의식 제고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해시 거주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김해시의 다각적인 실천 방안을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제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학습 단계를 입국 후 ‘1년 이내 집중단계’와 ‘심화단계’로 구분하여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먼저, 1년 이내 집중단계는 1년 이내 학습 기회에 최대화해야 한다. 이런 학습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요건은 접근성이다. 시간과 거리가 짧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은 심화단계의 학습 충족 요건은 기본요건인 거리와 시간이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김해시 특화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연계한 사업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둘째, 접근성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바우처카드를 이용한 사회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정책의 중복성과 학습교사의 전문성 결여, 학습의 접근성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중 지역투자사업 영역 중 ‘아동청소년 언어, 심리, 정서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각 지역에는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바우처제도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한 제도 중 하나이다. 하지만 바우처 카드를 이용한 지원 제도가 이주배경청소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도적 한계가 있는 부분을 김해시의 자체의 예산확보로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전문적 자격을 갖춘 선생님을 갖춘 사회서비스 기관을 활용한다면 한국어 수업의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다.

셋째, 법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필요하다. 김해시는 이주배경 인구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분포된 다문화 도시 중 하나이다. 김해지역의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회피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결국 취약 계층의 사회적 비용은 향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포용적 사회통합 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이 이런 지원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청소년까지 품을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포용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통합적 관리와 기존의 지원체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김해시의 다문화사회로 진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원주민과 이주배경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서로를 지역민으로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는 쉽지가 않다. 문화적 규범과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장기적 체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다문화라는 인식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식 개선을 위해 각 부처별 진행하는 사업은 마을잔치, 교육프로그램, 특강, 함께하는 여행 등으로 인식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적이고 의무적 교육 형태로 그 효과성은 미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미시적 접근의 진행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접근으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집중 투자 추진(영화 제작 등)과 김해시 자체의 특성있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지자체 자체 영화 제작 시도 또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 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인식개선을 집중화하는 것이 인식개선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효율성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한 점과 김해지역으로 한정된 조사는 전체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나, 김해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 마련에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로 확대할 수 있는 조사 범위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순규(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연구논총, 17, 3-37.
- 김화영 · 하정희 · 이은지 · 이재연 · 최기현 · 이유경(2021). 한국거주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 심리사회적응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청소년학연구 28:11,113-144.
- 노충래 · 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노승인(2018),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 중도입국한 후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29: 48-68.
- 박성희(2023), 『질적인 생애사 연구방법론』, 박영, 9
- 배상률(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 이경상 · 임지연 · 이민정,(2018).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배상률 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방란 · 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양계민 · 강경균 · 김주영(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2019).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미진·고홍일·김영화·이동훈(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vol.20(2).
- 오경석(2010). 입국초기 이주청소년의 경험과 다문화 사회 복지의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7(3), 33-54.
- 오성배 · 서덕희(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 이기숙(2008). 문화다양성과 가족생활교육. 여학생연구논집,19.
- 이수진 · 김현주(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서덕희(2016).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상황과 진로지원. p.57.
- 신진식(2022), 『경상남도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 방안과 정책대안 연구』, 경상남도의회.
- 송지현 · 박미은 · 이해경 · 김기수(2015),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폭력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대전복지재단 연구보고서.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정경희(2013). 중학생용 대인관계 조화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19), 2019 외국인 · 출입국 정책연감
- 최보람 · 유진이(2016)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1).
- 한은진(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 황복선 · 전성훈(2020). 고양시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고양시정연구원.
- 존W. 베리(2020), 『문화변용과 적응』, 에코리브르, 81
- Wilson, Thomas P.(1973), Theorien der Interaktion und Modelle soziologischer Erklarung. Arbeitsgruppe Bielefeldder Soziologen(ed.): Alltagswissen, Interaktion und gesellschaftliche Wirklichkeit, Bd. 1. Symbolischer Interaktionismus und Ethnomethodologie, Reinbek: Rowohlt, 54-79.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teacher's report form and 1991 profile. Univ Vermont/ Department Psychiatry.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Dubois, D.D., Felner, R.D., Meares, H., and Krier, M.(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522.
- Garmezy, N.(1994).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Haggerty, R.J., Sherrod, L.R., Garmezy, N., and Rutter,

- M.(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1969). Patters of adjustment and human affectionless. New York, NY: Mcgraw Hill Book.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68.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교육부, 2021년 교육기본통계, <https://www.moe.go.kr/main.do?s=moe>

김해시 홈페이지, <https://www.gimhae.go.kr/main.web>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viewer.moj.go.kr>

이주배경청소년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rainbowyouth.or.kr>

통계청 홈페이지, 2020~2040년 이주배경인구 추계. <https://kostat.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지원센터, <https://gnmigrant.or.kr>

ID			
----	--	--	--

(조사용\_한국어)

## 2023년 김해시 복지현장과 함께하는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개인정보 및 관련 내용은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이 조사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기관: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연락처: 055)342-6867

1. 현재 당신은 스스로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못하는 편이다	전혀 못한다
1) 말하기	한국어로 말을 걸 수 있다	5	4	3	2	1
	한국어로 전화/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5	4	3	2	1
2) 쓰기	한국어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5	4	3	2	1
	한국어로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5	4	3	2	1
3) 읽기	한국어로 된 잡지, 책, 인터넷 기사 등을 읽을 수 있다	5	4	3	2	1
	한국어로 된 생활정보지나 표지판, 간판 등을 읽을 수 있다	5	4	3	2	1
4) 듣기	한국어 노래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5	4	3	2	1
	한국드라마, 영화의 대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5	4	3	2	1

2. 현재 당신의 모습으로 생각되는 것에 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다	5	4	3	2	1
2) 나는 내 자신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5	4	3	2	1
3)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5	4	3	2	1
4)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5	4	3	2	1

3. 현재 당신의 모습으로 생각되는 것에 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국에 3명 이상 있다	5	4	3	2	1
2) 나는 한국에 친한 친구가 있다	5	4	3	2	1
3) 나는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5	4	3	2	1
4) 나는 한국에서 현재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운동, 영화관람, 여행 등)를 함께할 사람이 있다	5	4	3	2	1

4. 현재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5	4	3	2	1
2) 나는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5	4	3	2	1
3)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배우고 있다	5	4	3	2	1

5. 현재 아래의 내용에 대한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 하십시오.

문항	매우 관심 있다	조금 관심 있다	보통 이다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1) 일반학교 진학	5	4	3	2	1
2) 취업	5	4	3	2	1
3) 영주권 획득, 국적 취득	5	4	3	2	1
4) 검정고시	5	4	3	2	1
5) 어학프로그램 (토익시험, 어학원 등)	5	4	3	2	1
6) 기술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과정	5	4	3	2	1
7) 진로교육프로그램	5	4	3	2	1

6. 현재 한국에 사는 당신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당신에게 해당되는 것에 표 하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국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5	4	3	2	1
2) 나는 한국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5	4	3	2	1
3) 나는 한국문화(전통문화, 음식문화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4	3	2	1
4) 나는 웃어른에게 존댓말하기 등 한국에서의 예의범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4	3	2	1
5) 나는 한국에서 혼자서도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	5	4	3	2	1
6) 나는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4	3	2	1
7)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2나 119에 전화하는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5	4	3	2	1
8)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	5	4	3	2	1

7. 귀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항	응답
1) 이름	(한글명)
2) 출생국	<input type="checkbox"/> 중국 <input type="checkbox"/> 러시아 <input type="checkbox"/>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현재 몇 학년인가요?	① 초등학교 ( )학년 ② 중학교 ( )학년 ③ 고등학교 ( )학년 ④ 해당사항 없음
4)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시기	_____ 년 _____ 월
5) 한국어학원,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던 경험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6) 출생년도: 태어난 년도	_____ 년
7) 성별	<input type="checkbox"/> 여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8)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해당되는 사람 모두 ✓표 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할아버지/ 할머니 <input type="checkbox"/> 친척 <input type="checkbox"/> 형제/ 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감사합니다.

조사 일자	조사기관명 (지역명)
2023. . .	학교 ( )



퍼 념 : 2023년 12월

발 행 인 : 최 정 규

발 행 처 : (재)김해시복지재단 정책감사팀

주소 :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 46(삼방동)

전화 : 055-336-2400

팩스 : 055-336-3131

[www.ghwf.or.kr](http://www.ghwf.or.kr)

[www.facebook.com/ghwf2400](https://www.facebook.com/ghwf2400)

---



